

교회창립 40주년 기념

# 믿음의 소리 2014

VOICE OF FAITH

화목한 교회 섬기는 교회

Peaceful Church Serving Church

## 벅스카운티장로교회의 목표

Goals of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1.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God-Centered Church of Worship
2. **예수님 중심으로 교육하는 교회**  
Jesus-Centered Church of Education
3. **성령님 중심으로 선교하는 교회**  
Spirit-Centered Church of Mission

## 목 차

### 담임목사님 말씀

아름다운 교회

김풍운 목사

### 교역자 칼럼

크리스천 피노키오

이승우 목사

Returning to the Lord

Tom Chang 목사

Getting to Know the Young

홍윤미 전도사

### 선 교

본교회가 돕는 분들과 선교단체

2014년 BCPC Youth Group Summer Missions

박반석 목사

선교사편지

김명수 선교사(케냐)

장택규 선교사(요르단)

박민하 선교사(한국GBT)

이남행 선교사(중국)

### 40주년 기념

우리 교회의 좋은 점

각 교구

40주년 기념행사 화보

우리 교회 연혁

### 삶과 믿음이야기

발자국

김철우 장로

값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김건엽 장로

신앙은 평소 때가 중요하다

허우강 장로

새교우 섬김

양찬모 장로

삶

부태형 집사

우리 목장 이야기

김인옥 권사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목장

정순금 집사

우리 교회 40주년을 맞으며

신종열 권사

우리 아버지

박순천 권사

1초 앞을 모르는 인생이야기

홍영애 권사

여행이야기

김원연 권사

세상속에서의 주님 증거  
 리브가 전도회장을 마치며  
 어느 신출내기의 좌충우돌 적응기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호산나 어린이 성가대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God's Love is in Every Language  
 나의 간증  
 내리신앙  
 오후 5시에 뽑힌 인생

황준호 집사  
 정순금 집사  
 이 영 권사  
 황순원 집사  
 민승현 형제  
 배만성 형제  
 Mr. Robert  
 강태예 집사  
 최광수 집사  
 이강훈 집사

편 지

2014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들  
 교회 앞에 드리는 작별인사

양원호 장로  
 김경숙 권사

시

나의 신앙고백

공문선 권사

교 육

제 2 교육위원회 안내

오정선미 권사

사진으로 만나는 2014년의 시간들

2014년 새교우들

편집후기

교회안내



## 아름다운 교회(눅15:1-7)



담임목사 김봉운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Beautiful Bucks County! 이 말은 미국인들이 벅스카운티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4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를 부를 때도 “Beautiful Bucks County Church”라고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아름다운 교회(more and more Beautiful Church)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려보고 싶습니다.

### 1. 모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1절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이 나오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더럽게 여겨서 함께 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는 미국을 아름다운 나라(美國)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복음의 정신 위에 세워져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된 나라이기에, 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간 주님의 은혜속에 벅스카운티와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저지의 여러분들이 모인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2.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말씀을 사모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여, 그들은 성경지식이 많았음에도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우선된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이든, 처음 믿은 사람이든, 중직자든 초신자든, 고학력자든 누구든지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포사회의 여러분들이 좋게 말씀해 주

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욱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 3.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DNA(유전정보 보관물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찾은 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에서, 잃은 한 드라크마를 애써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모습에서, 나아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옴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DNA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찾으시며 죄인이 돌아옴을 기뻐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양하던 중 우리 교회에 대하여 “화목한 교회”, “섬기는 교회”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화목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를 이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므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을 돌아볼 때,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복음의 정신에 가까이 선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게 되도록 우리 모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 크리스천 피노키오



이승우 목사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피노키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다.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에게는 특이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딸꾹질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점점 커지는 모습을 딸꾹질 현상으로 창작해 낸 것이다. 어쨌든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딸꾹질 현상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바로 탄로가 나서 결국에는 진실을 말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피노키오 현상은 드라마를 위하여 만들어낸 현상이지만, 인간이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미묘한 육신의 반응을 잡아내어 그래프로 표시해주는 거짓말 탐지기가 발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가상의 피노키오 증상처럼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양심을 통하여 딸꾹질이 일어나도록, 마음에 가책을 느끼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다. 우리는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스스로 찔림을 받는 가책으로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양심을 통하여 찔림과 책망을 받으면 인간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양심은 그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단순히 기본적인 양심의 가책만으로는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딤후1: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온전한 양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새로워져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거듭난 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은 죽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양심을 버린 사람이라면 믿음에 관하여도 파선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사도행전 24장16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고백했다. 믿음으로 거듭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항상 힘쓰며 사는 그 사람이 진정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넘어섰다. 교인들도 수백 명이요 예배당과 기타 건물도 너무 좋고 안정된 모습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신 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과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가? 죄를

지을 때, 불의를 행하게 될 때, 거짓말을 하게 될 때 내 양심에서 강한 찢림과 책망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는가?

초대교회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는 양심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믿을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인정을 받았다. 한국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피노키오 증후군을 가진 기자의 보도를 신뢰한 것처럼, “크리스천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현대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양심에서 딸꾹질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오늘날의 크리스천 피노키오가 되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행 23: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 “Returning to the Lord”(Exodus 4:18-31)



**Thomas Chang 목사**

Because the Christian life is filled with many ups and down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we need to understand is: *Returning to the Lord*. When you look at Exodus 4, the Hebrew word that is continually repeated is “shuv”, which means to go back or return. By studying the text we can see at least three things about returning to the Lord.

First, to return to the Lord, we need to learn to “Let It Go.” For Moses to return to Egypt and to return to serving the Lord, Moses had to let many things go. Verse 18 tells us that he had to let go of his work and finances. We also learn that he was willing up to give up his parents. Remember, Jethro was his father in law who gave him a job, wife, and home to live in. These things are important to note because often it’s these two things that we make into idols and refuse to let go! Although there is nothing wrong with money and relationships in themselves, the point is, Christianity calls for a total life commitment. To put Jesus first. If anything is taking way from our allegiance to God then we must be willing to “Let it Go.”

Second, to return to the Lord, we need to understand our identity as the “Sons of God.” We know this by looking at verses 22-23. Why is God even quarreling with Pharaoh? He is upset because although Pharaoh just thought of the Israelites as worthless, to God, they were his treasured children. This is important for us to see because God’s fatherly love isn’t just for Israelites, but for everyone who comes to faith in Christ. So how are we to return to the Lord? By realizing that God isn’t just a distant God, but our loving father who always fights for us and will always be faithful to us. If we could wrap our minds around this truth, that the Creator of the world is our Father and we are his beloved children, then surely we will return to him.

And third, to return to the Lord, we need to realize the meaning of “Circumcision.” In verses 24-31, we see Moses was on his way to Egypt, but all of a sudden God almost kills him. Many people miss this part. Although Moses failed by failing to circumcise his son, the good news is he is saved because Zipporah, his wife, circumcises his son and touches his husband with the bloody foreskin. The question is: what’s so special about circumcision? The main thing is, it was a distinguishing mark to show one’s faith. Today circumcision is signified through baptism. This is key to understand because as much as we need to let things go and realize our true identity, without going through process of “circumcision,” we can never return to the Lord. That’s what God was really trying to teach Moses. The penalty of breaking



the covenant is death, but he would be saved by the blood of his son's circumcision and return to life. In the same way, this illustrates the one thing we really need to return to the Lord: the gospel! Because like Moses we've all failed to keep God's laws/covenants and thus we all stand under the wrath of God. But the good news is like Moses we too can be saved by the blood of a sacrifice and this is exactly what Jesus provided on the Cross. The Son of God sacrificed himself for our sin, shedding his blood and taking our death in order that we might have life. And not just any life, but a life returning to the Lord to live with him in eternity!



## Getting to Know the Young



**Pastor Annie Hong**

Hello Everyone!

My name is Yunmi (Annie) Hong, the new elementary JDSN. I am so excited and happy to serve in our beloved church, with many dreams and goals for our elementary department, and as a church as a whole. Just to give you a little description about myself, I am currently a Westminster student pursuing a M.Div. Counseling degree and I have graduated from Binghamton University with a Psychology B.S. degree.

My vision for our elementary department is to strive to educate and to build strong soldiers of Christ, with the mindset of servant hood, humility and love. With the help of our dedicated teachers and supporting PTA, we strive to surround our students with a loving environment that embodies the body of Christ. We have many exciting activities and performances throughout the year, which challenge our students in loving fellowship. Sundays are filled with praise and worship, followed by bible study, grounding our students within the Word of God. Our Friday fellowships called BBC (Body Builder's Club) are filled with arts & crafts, bible trivia, leadership training and much more. To top of every year, we hold a grand Christmas performance to celebrate the birth of our Lord Jesus Christ.

Our students are more than extraordinary. Every three months, our elementary choir visits the nursing home to bless them with our praise and worship, and to practice our serving attitude in reality. From writing the bible verse by verse to bible memory contests, our students are constantly grounded within Scripture.

With the New Year, I pray that our beloved students will continue to grow in God's Holy Word, in His grace and mercy. We, as leaders and teachers, will continue to build a strong environment for our students, that not only disciplines our students in Christ but also to build a strong foundation in faith. Please continue to keep our beloved young children and the teachers in your prayer every day. With God's Word in one hand and with constant prayer and thanksgiving in another, we will become the next leaders of our generation in Christ.



선교

본 교회가 돕는 분들과 단체



본 교회가 돕는 분들과 단체

파송선교사 김명수(케냐) 장택규(WEC)

협력선교사 유병국 (WEC국제본부) 장석창(태국) 이남행(중국) 이상길(러시아) 장영호(GP 한국본부)

이춘심(네팔) 박용현(네팔) 이준교(이집트) 최명운(케냐) 최용기(필리핀) 김우영(몽골) 전영구(도미니카공화국)

황기수(캄보디아) 한준수(태국) 하홍중(태국) 허태녕(튀니지) 박민하(한국GBI) 정훈기(GMC) 강민숙(일본)

심재원(모리타니아) Chris Brown(아제르바이잔) 이영주(이집트)

협력 단체 중동선교회 필라기독방송 미주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 타임스 오늘의양식

동부개혁신학교 뉴비전청소년센터 크로스선교회 GPM 선원선교회(필라) 밀알선교단(필라) JAMA

한국군선교회 신바람낙도선교회 JOY선교회 Delta Community Langhorne Garden(양로원사역)

YESDaddy(고아원사역) 여호와넷시의 집

# BCPC YOUTH GROUP

2014 SUMMER MEXICO MISSIONS

Pastor Peter Pak



## Safe and Secure in His Arms

I look forward to write for BCPC's "Voice of Faith" each year because it is an opportunity for me to look back and remember the summer missions trip of that year. Before beginning to write about 2014 Summer Mexico Missions, I went back to all the past missions articles in previous editions of "Voice of Faith." Page after page of proof that God has blessed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abundantly over the years so that we can be a blessing to those who are in need. It is amazing to remember all the various ways in which God protected us, sent us, used us. "Many are the plans in the mind of a man, but it is the purpose of the LORD that will stand." [Proverbs 19:21] I hope you will be encouraged again this year as you read about the sacrifice and service of these young students' lives. I hope you will join us in giving thanks to our Lord for His amazing grace and sovereign protection of our team.

It all began on the first day of our travels when our flight was delayed multiple times. We would eventually land in Guadalajara airport about 3 hours later than scheduled. It was a very long morning for all of us, and everyone was just excited to finally step foot in Mexico. We were greeted by Pastor Kenton Wood and Pastor David Ramirez, who drove us to the "mother church" located in the heart of Guadalajara. After eating lunch, resting, and participating in a seminar about the church, their ministry and church planting philosophy, and theology of missions, we embarked on a 3-hour drive to the mountainous Tarecuato region. Mexico is a truly beautiful country and I could sense the anticipation and excitement of all the students.



## “God’s Grace in My Illness”

Testimony by Yuna Kim



I had been struggling with my faith for a couple of years. I thought a lot about the reason why I come to church, to retreats, and to other church events. I questioned whether this faith in God and Jesus was real or not. I didn’t feel like an ideal candidate for missions. I was filled with anxiety, uncertainty and fear. How could I minister to others when I have such doubts about my own faith? Everything in my life seemed to say, “Don’t go.” I was feeling sick before the trip. I had an argument with my mom right before our flight. I felt so unprepared.

I learned that no matter what I felt, God wants us to surrender to Him. He wants us to give Him our all. I realized then that my circumstances and troubles were God’s way of drawing me closer to Him. The struggles and frustration pushed me to go back to God and pray to Him more. One of our memory verses was deeply personal to me. “When I am afraid, I put my trust in you. In God whose word I praise, in God I trust; I shall not be afraid. What can flesh do to me?” [Psalms 56: 3-4] When we arrived I was tired and stressed, but after our first children’s ministry at Los Laureles, I immediately knew that God sent me on the trip with a purpose. Seeing the children open up and join in to praise God really encouraged me and gave me great joy. God also encouraged me though Pastor David and his family. When I became very sick on the trip, God showed me how much He and the people around me loved me and cared about me. God is always with me.

The next morning we were greeted by Pastor David Ramirez and his family, wife Elvira, and daughter Eunice, and we shared breakfast together. It makes me laugh as I think about the theme for our VBS program: “God’s Great Adventure.” What followed in the days ahead was truly an adventure for our entire team, and God was with us through it all. Each day we ministered in two different locations: Los Laureles (a largely unreached people group about 20 minutes from the church) and Ma Jajki Center, Tarecuato (church of Pastor David). There were 60-90 children at each location, and so by the end of the day our team was extremely exhausted physically. Each day had its own specific challenges: torrential rain in the afternoons, the language barrier, shyness of the children, skepticism of the locals, physical illness. It was not an easy trip, but it was a truly blessed trip.

God placed every single student for a reason on this team. There were of course countless challenges and difficulties as many of our students can tell you, but each and every time the Lord showed up in grace and power. There were mornings where it looked like it would rain, but God kept the rain away until our morning VBS was finished. It gave us an opportunity to use a large field to play games with the children. The rain would eventually fall all afternoon during our afternoon VBS program, but since we lacked the space, it worked well that we switched to a longer arts and crafts session with the children in the afternoon. I looked in amazement as our team would split up into natural small groups with the children, utterly focused on serving them. It is impossible to put into words the laughter and smiles from the children and our team. Maybe some of the pictures can express the sense of joy we all felt in those days.

Two of my greatest fears came true this summer. 1. A family member passing away during missions. 2. A team member becoming extremely ill. I remember receiving the email in the early afternoon, and gathering the team together to tell Ginah Chae and Jason Kim that their grandmother had passed away. It was an afternoon filled with tears, frustration, sorrow. There was an immediate response from the students to go to Jason and Ginah, holding their hand, embracing them with their arms, praying both quietly and out loud. It was an extremely difficult situation, but both Ginah and Jason said with such confidence and tenderness, “God called me to be here to serve these children. I know I want to go home, but I need to be here.” God is not absent in our struggles and problems. God is always with His people. God was with Jason and Ginah.



is not absent in our struggles and problems. God is always with His people. God was with Jason and Ginah.

Our testimony is not yet over. On the day of our departure, it was clear that Yuna Kim was seriously ill, to the point where we had to take her to a hospital. Our flight was eventually cancelled, and so while most of our team was stranded in an airport hotel in Mexico City, Yuna Kim was recovering in a hospital in Guadalajara. We were unsure when she would be well enough to fly back to her family and home. We prayed all day and night for her recovery. Two of our students in particular sacrificed so much to stay by Yuna's side. It was an intense emotional roller coaster to say the least: parents and families worried back in the states, the missions team split apart, students worried for one another. One week after coming back home from missions, I asked Yuna, "Would you ever go on missions again?" She replied, "I really hope so. My mom even said that maybe I can." I laughed. It was not the answer I expected, but it's the answer I wanted. It's the answer of someone who had met God in her storm, the answer of someone whose eyes were opened to the unswerving faithfulness and protection of the Lord. I do not wish any difficulties on anyone, but when they come, and they will come, trust that you are safe and secure in the arms of God.



*<sup>11</sup>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sup>12</sup>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hear you. <sup>13</sup>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Jeremiah 29:11-13



Please continue to join us in praying for Pastor David Ramirez, his wife Elvira, and their daughter Eunice.



*12 "And now, Israel, what does the Lord your God require of you, but to fear the Lord your God, to walk in all his ways, to love him, to ser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13 and to keep the commandments and statutes of the Lord, which I am commanding you today for your good?"*

## 2014 Summer Mexico Missions Team Members

- Pastor Peter Pak
- Seth Choi Jundosanim
- Ginah Chae
- Lydia Cho
- Kristine Chung
- Joseph Ham
- Joanne Hwangbo
- Yelin Jung
- Elliot Kang
- Jason Kim
- Rebecca Kim
- Yuna Kim
- Celina Lee
- Leah Lee
- Samuel Rhee
- Samuel So
- Andrew Son
- Josephine Yi
- Irene Yoo

We could not have served without your partnership with us.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 케냐 선교 소식

김명수 선교사

1 월 4 일, 2015 년 첫 주일 예배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선교관에서 잠시 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찬양소리와 설교에 쉼을 포기하고 나와 봅니다. 내일 시작하는 2015 년 첫학기를 기념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예배 후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에서 세례 받은 11 명의 신도들, 학업의 시작을 예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학생들 모두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돌연듯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4 년도에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사역에 열심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 들과 여러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

작년 마지막 학기말에 졸업하는 고등학생들을 모두 불러다가 음식을 나누고 성경공부를 하고 성경을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시편 1 편의 복된 자처럼 되라고 격려하며 졸업선물로 맛사이/스와힐리어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음식을 다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박, 팥콘, 아이스크림등을 처음으로 먹어보는 기회가 되었지요. 먼저 식사를 하고 간식을 하였기에 많은 아이들이 음식을 남겨서 다른 아이들과 나누든지 또는 나중에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아서 우유처럼 돼버린 아이스크림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팥콘을 저희들보다 어린 학생들과 나누는 모습이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더 줄 것이니 성경공부 더 하자, 나의 아이들아!

고등학생들 성경공부와 더불어서 주일날 교인들을 상대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예배는 오랜 시간동안 드립니다. 도시에서는 2 시간 정도 드리고 시골에서는 4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고 세상의 급박함이 없으니 예배를 오래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구전문화 속에서 사는 이들의 예배내용은 말씀이 많이 부족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4 시간의 예배중 시간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쓰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호세아로 시작해서 소선지자서의 공부를 통해서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다른 이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낀 기회가 있었습니다. 맛사이 오지의 교회개척 문제로 “기용가”라는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해발 1600m 에서 교회까지 급경사로 2090m 까지 올라가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전혀 길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야산의 돌밭을 전륜구동(4x4)으로 힘들게 올라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 저희가 사역하는 맛사이 전 지역이 확트이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동행한 이미에 선교사에게는 혈압이 올라가는 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맛사이에서 25년째 오지로 온갖 험한 길들을 다녀본 저로서는 산행길이 새로운 경험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위안으로 다가오는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고난의 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선교지의 삶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명의 길, 즐거운 길로서 힘차게 나가고 싶습니다. 매일매일을 새롭게 선교지에서 사는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로이카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경청하는 교인들과 예배후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올려놓으며 인사모습



쇠를 자르고 용접해서 지붕이 올라가는 삼각대를 만든 모습

큰 길에서 3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지역의 특성상 고립된 지역인 “올로이카”지역 에 교회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말레티사의 교회 건축은 공사비용(2 만불)의 예산초과로 임시증축만 하고 더 급박하게 건축이 필요한 올로이카지역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그 흔한 양철지붕의 집 한채도 없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손에서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맹이라서 성경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태양열 충전 성경통독기의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마침 미국의 한 목사님이 통독기 100 개를 만들 수 있는 지정헌금 4 천불을 보내주셔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곳 올로이카 지역만이 아니라, 맛사이 오지지역의 성도들에게 글을 읽지 못하면 통독기를,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책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 기도편지 이후에 짧은 우기철이 있었습니다. 이때 받아서 모아놓은 빗물로 평소보다는 풍족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온 집안이 온갖 벌레의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들의 젖냄새와 소똥으로 인해 인산인해로 몰려와서 음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파리 떼와 더불어 온갖 딱정벌레와 땅벌레 그리고 전갈까지 집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로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한 기운으로 벌레들이 다 없어지니 위안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어서 물과 전쟁을 해야 하니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맞사이들에게는 당연히 물이지요!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우물 프로젝트는 지난 기도편지를 읽고 오래 전에 단기팀으로 방문한 자매가 현금하고 저희들도 보태어 종자돈 천불이 3천불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토지 특성상 물이 있는 곳이 깊고 또한 큰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에 3만불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은 몇 분(교회)이 5천 불에서 만불 정도만 후원해 주시면 맞사이 땅에 항상 풍족하게 축복의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슬렘의 테러가 이제는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호주에서, 중동, 미국, 아프리카 어느 곳이든지 기독교인이 있고 모슬렘이 있으면 테러라는 모습으로 이들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개월 동안에 기독교인 36명이 모슬렘들에게 참수 당하고 경찰 21명이 소강도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등 케냐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케냐에서 새해 첫 소식을 드렸습니다. 살롬!

2015년 1월 12일, 김명수, 이미애 선교사 올림



300여명의 맞사이 사역자들이 비즐 교회에서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모습

**[중보 기도부탁드립니다]**

- \* 케냐-소말리아와의 전쟁으로 케냐안에서 모슬렘들의 테러가 구체적으로 또한 저희 주변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현지인들과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 \* 나이로비와 맞사이의 강의 사역, 선교센타안의 학교사역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알아가게 하는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 맞사이 지역 선교관과 학교, 교회, 부족민들이 사용할 우물과 집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 \* 맞사이 지역에 있는 교회중 건물이 없는 4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 \* 가족 모두의 건강과, 학업과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함 인도함과 동행이 있도록
- \* 새학기에 시작하는 이슬람학, 선교학, 히브리어문법, 히브리어 성서해석학의 강의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신실한 제자를 만드는 강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사랑하는 가족들께

장택규 선교사

감사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문안 인사 올립니다.

올 해는 식구가 하나 늘었네요. 나나가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토마토 수확이 끝난 밭 근처로 가족이 텐트를 옮겨 유목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찬 바람이 거세서 잔치 손님이 예전만 못했지만 찾아 온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나나네 식구도 성탄 모임에 와서 너무 반가웠고 나나 엄마가 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시끄러운데, 요르단이 한 해 동안 평화로워서 안전 가운데 클리닉 사역을 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7,000 명이 넘는 환자들이 찾아 왔고, 돌아가는 길에 말씀 선물을 받아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여자 어린이 영어교실’(Girls Club)이 꾸준히 진행된 것도 감사하고, 올해 ‘남자 어린이 모임’(Boys Club)도 시작되어 감사합니다. 아기 쌀람, 나나, 아담이 돌봄이 필요했던 순간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매일 아침과 매주 목요일에 기도회로 아버지께 이웃들을 부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특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계획보다 일상 속에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영적인 풍성함도 맛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년엔 조가 대학에 가고 저희들도 다시 Y국으로 들어 갈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조는 여러 대학에 에세이와 응시자료들을 보내며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은 장씨 가족의 큰 전환점을 맞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하세요.

2014년 12월 30일  
장 디모데, 이 캐롤, 조 올림



## 마흔 네 번째 기도편지

이대로 선교사

###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금년에 이곳은 이상하리만큼 예년보다 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어 있는 이곳의 영적인 상황도, 정치적인 상황도 날씨처럼 따뜻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이곳에서는,

지난 번에 편지를 드린 이후에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테러의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성의 한 도시에서 무차별 테러사건, 다른 도시에서 종교지도자 암살사건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추운 겨울인데도 많은 무장경찰들을 배치하여 삼엄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희책과 강경책으로 이 민족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계속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민족갈등 속에서도 희망이 되는 것은 한족 그리스도인들이 단기, 장기사역을 하기 위해 이곳에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이나 힘의 논리가 아닌 십자가의 논리로 민족을 뛰어 넘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되고 춤추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 너무 늦게 알았다.

지난 동역서신에 알려드린 ‘꽃드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지역의 명절인 코르 반헤이트(희생축제) 때 함께 참된 희생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신앙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신앙을 가진 후 어떻게 변해 왔는지와 이런 기쁜 소식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인의 친척과 친구들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블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만나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위그르족으로 태어나 희망 없이 사는 삶을 뛰어 넘어 진리 안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 음악회 & 현지인 사역자와 네트워크.

최근에 현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몇 가정과 함께 집에서 성탄절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현지인 아이들이 각자 배운 악기(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오로지 선교사와 우주가 클라리넷, 피아노 연주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선교사가 성탄메시지를 나누고 이 모임을 통하여 성탄을 느끼기 어려운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 이후에 현지인들의 요청으로 연말에 또 한 번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3 개월에 한번씩 모여서 음악회를 열자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던 남자 성도들이 모이고 함께 격려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선교사는 현지인 리더 자녀의 음악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음세대들이 자라나 음악으로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한 재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 기도편지에 현지인 리더십과 네트워크를 위해 기도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지인 리더와 구체적인 동역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가정교회가 현지경찰에 노출되면서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신자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 속에 그들이 인내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팀 사역

팀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편지를 드린 이후에 두 싱글 사역자가 팀에 합류하였습니다. 새로운 팀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새로 오는 팀원들이 잘 정착해 가고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고 있어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더 팀에 합류하려고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팀원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어서 본격적인 팀 사역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저희 팀의 연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금년의 계획을 함께 세우고, 리더를 선출하는 모임입니다. 성령충만한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가족 이야기.

해나는 홈스쿨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서 공부해야 할지 다음 학습방향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현지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현지 언어도 많이 향상되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부딪치는 작은 사건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근심하게 하지만, 선생님에게도 사랑 받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중고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추운 겨울날 먼 길을 걸어 학교를 가야 하는 우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주와 관련해서 지역담당경관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고 외국인이 살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서 거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랑으로 한 해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많았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위축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올 한 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때까지 이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꽃을 피우길 원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 해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저희 가정이 낙심하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꽃드리’가 계속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녀의 동생 ‘하나샷’가족과 규칙적으로 만나 성경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아블리’가 계속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1월 26-31일까지 열리는 현지 필드컨퍼런스에 성령충만하게 참여하고 비전을 얻도록, 아울러 컨퍼런스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나가 홈스쿨을 집중해서 잘 하고 다음 학습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우주가 현지학교에 학습에 잘 따라가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The LORD is my rock,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is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He is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Psalm 18:2)

## 불타지 않을 것을 위하여(고전 3:13)

박민하 선교사

그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때 이른 추석이라 썩 더웠으나 가족, 친지들과의 즐겁고 반가운 만남을 가지셨겠지요. 소망과 결실의 계절을 맞아 맡으신 사역과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활용 사역의 협력: 저희 선교회는 성경번역 그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번역된 성경을 통해 미전도 종족이 변화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선교사가 번역한 소수 부족 성경을 활용하여 선교지 교회개척이 활성화 되도록 타 단체와의 동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번역만 하더라도 십수 년이 걸리는데 번역된 이후 성경을 통한 선교지 교회활성화 사역을 추진하는 것은 미전도 부족들로 하여금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합동, 고신, 감신 교단 선교부 및 여타의 교회개척 선교 단체들과의 전략적 동역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 월, 선교사의 사역지 확장과 선교지 교회 활성화를 위해, 미국 달라스에 있는 PBT (Pioneer Bible Translators)와 동역하기를 협의하였습니다. PBT 가 지난 8 년간 성경 번역 단체와의 동역을 위해 기도해 오는데 GBT 가 제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였습니다. 이제 오는 8 월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며 미전도 종족을 위한 동역팀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PBT 회원을 아틸락에 파견하여 성경번역 훈련을 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어성경 번역: 저희는 5 월에 뜻깊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 수어 연구소(The Korean Christian Sign Language Research Institute)에서 진행하는 수어성경 번역 녹화현장을 참관 하였습니다. 청각장애 목사님들이 일본 사역자들도 초청하여 한국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GBT 가 아직 이 분야에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나 수어연구소에서 같이 동참해 주기를 위하여 그간 전혀 동참하지 못했던 수어 성경번역에 참여할 여력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향후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할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47년 만에 마친 성경 번역

4 월에는 남아시아 셀과 부족 신약성경 번역이 완료되어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 부족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5 팀이 47 년에 걸쳐 사역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각 팀에게 질병, 자녀 문제, 사고, 암 발병과 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 없이 전진하여 마침내 그 부족어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에도 한 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번역된 S 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부족교회가 굳건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 통합 사무실 계약

지난 10 년간 본부 사무실이 사당과 안산 두 곳에 나뉘어 있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본부 전체의 공동체 의식고취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양 사무실을 통합할 새 사무실의 필요가 절실하였습니다. 2년 전부터 기도하며 통합 사무실을 찾았는데, 지난 달 통합 사무실을 계약하였습니다. 그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사무실을 정리하고 새 사무실로 옮기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과 절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현재 사용 중인 사당 사무실을 매각하지 않고 선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선교사 회복을 도우며

문 선교사는 지난 3 월부터 10 주 동안 선교사들을 위해 터닝포인트 상담센터에서 미술치료로 섬기면서 안식년 선교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되는 과정을 함께하였습니다. 7 월 21~23 일에는 부산의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회복그룹에서 미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담공부와 미술치료를 통하여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가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분별하며, 지지 않고 평안과 기쁨으로 본부 사역을 감당하도록
2. PBT(Pioneer Bible Translators)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GBT 사역의 지평이 넓어지며,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선교지 교회가 활성화 되고 각 교단선교부 및 교회개척선교회와의 동역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도록
3. 선교 한국대회(7 월 28 일~8 월 1 일)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헌신자들을 발굴하여 잘 훈련할 수 있도록
4. 통합사무실 이전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본부 사역자들이 하나되어 시너지를 이루고, 새로운 사무실 구입과 이전에 필요한 자원과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5. 민영이가 믿음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만나며, 호영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비전을 찾아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풍성히 임하기를 바라며,

박민하, 문신희 드림



## 벽스카운티장로교회 창립 40 주년



화목한 교회 섬기는 교회



## 우리 교회의 좋은 점

### 이영석 교구

#### 우리 교회의 좋은 점

젊은 교회로 활기찬 모습(당회원도 젊은 층)과 새신자를 잘 영접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철저히 교육한다.

안내 중에 모든 분들을 친절히 대함, 목자의 모범적인 리더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의 너무 모범적인 모습, 성숙한 모습에 많은 은혜와 자극을 받는다.

오래 전부터 잘 섬겨오시던 분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토대가 이루어져 있어 교회가 평안한 것  
선배장로, 안수집사(창립 멤버)들의 겸손한 섬김과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서 있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이영석 목장, 김인옥 목장, 이해순 목장, 이보희 목장, 이금선 목장, 김복자 목장

## 양원호 교구

### 우리 교회의 좋은 점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해서 감사합니다.  
 목사, 교구장님들이 좋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좋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인데 서로 섬기므로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참 양순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교회가 질서정연합니다.

### 사행시 백일장

이렇게 좋은 교회를 아시나요?  
 천국 행 열차 탈 수 있는  
 십자가 사랑으로 모인 교회  
 오늘 오세요, 벅스카운티장로교회로!

이 세상을 둘러봐도  
 천하 둘도 없는  
 십분 만 안 봐도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오직 나의 양원호 교구!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알았으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과 괴로운 길 많고 많은 삶이지만  
 천국을 향한 복된 길을 행한 길이 있기에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길  
 오로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 이 길 따라가리.



양원호 목사, 김건재 목사, 김종보 목사, 김석환 목사, 최하실 목사, 김은희 목사, 정태인 목사

## 김철우 교구

### 우리 교회의 좋은 점

모두가 겸손 “humble”을 실천에 옮기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의 말씀과 온유한 성품이 좋습니다.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생명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 잘 배려해서 좋습니다.

헌신된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가지 달란트를 가진 성도님들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주님의 집을 열심히 섬기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겸손하십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지시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목장사역이 활성화 되어 교인 수는 적지 않지만 목장이 중심이 되어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조용한 성품의 교인분들이 많아 교회 각처에서 소리없이 숨어 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철우 목장, 이강훈 목장, 황준호 목장, 이우현 목장, 김학제 목장, 이종성 목장, 이동식 목장

## 최환식 교구

### 우리 교회의 좋은 점

가족같이 따듯한 교회

물심양면으로 청년부를 후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으심

잘 하든 못 하든 격려해주심, 교회의 차세대 주자로 관심을 갖고 기대해주심 감사

소수의 인원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청년부

새로운 분들이 근시간 안에 서로 하나되는 모습 감사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 위로할 수 있음 감사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환대, 사랑해주니 적응하기 쉬웠음에 감사

청년부가 벅스카운티장로교회라는 좋은 옥토에 떨어져 열매 맺어가게 하심에 감사

가족 같은 교회, 자연스럽게 대인관계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

말씀이 좋고 순순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좋은 교회

가끔 가족 사진도 찍어주어서 좋은 교회

덧새 없는 교회, 새 신자 모임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좋은 교회

점심식사가 맛있어서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해서 좋은 교회

좋은 모범이 되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많은 좋은 교회

어른들(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많고 진심으로 대해주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직장,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는 분들이 많아 좋은 교회

너무 좋아서 더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교회



청년부

## 김건엽 교구

### 우리 교회의 좋은 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담임목사님 성품과 인품이 좋으시며 설교말씀이 좋고, 분란이 없고 화목해서 좋다.  
포근한 분위기, 또래가 많아서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교회, 따뜻한 사랑이 깊은 교회라 좋다.  
담임목사님이 좋고, 선교지향이어서 좋다.  
집처럼 편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어서 좋다.  
기도하는 교회, 화합하고 서로 아껴주는 교회여서 좋다.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이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좋은 교회여서 좋다.  
온화하며 모든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넓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여서 좋다.  
사랑이 넘치고 부담이 없고 평안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쳐서 좋다.  
가족 같은 교회, 성경적이라 좋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과 조용하고 분란이 없어서 좋다.  
사랑이 많은 교회, 찬양을 잘 하는 교회여서 좋다.  
조용하고 넓은 환경, 온화하신 목사님이 좋다.  
말씀대로 행하며 진실된 목회자들이 계셔서 좋다.  
분위기와 말씀이 은혜롭고 아이들이 많아서 좋다.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따뜻한 교우들이 있어서 좋다.  
밝은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다.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다.  
목사님의 말씀과 예배 중심이어서 좋다.  
말씀이 살아있고 진실함이 살아있는 교회, 상대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교회, 성숙함이 살아있는 교회여서 좋다.  
중심이 있는 교회, 분란이 없는 교회여서 좋다.



고광울 목장, 조현일 목장, 박 은 목장, 조성은 목장, 이종일 목장, 양찬모 목장

## 안병민 교구

### 우리 교회의 좋은 점

다른 교회에 비해 찬양대 수준이 높다.

목사님 말씀이 순박하고 진실하여 예배마다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이 순박하다.

교인들이 천사 같고 양 같으며 따뜻하다.

조용하고 사랑이 많다

시내에 비해 개방적이고 순수하며, 신앙생활이 자유롭다.

목사님이 너무 좋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신다.

가족적 분위기와 질서가 있다.

목사님이 다정하시며 늘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목사님의 역량이 크시다.

교회 초창기 멤버들의 사랑이 많다.



안병민 목장, 신정희 목장, 윤영석 목장, 계명환 목장, 김경숙 목장, 이진우 목장, 장 철 목장

40주년 기념행사 1. 경로잔치(2014년 5월 31일)



한국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한국학교 풍물반



이수빈 외



연합합창대





2.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2014년 10월 4일)



고등부 바디워십



부채춤 "아리랑"



김예찬



독창자 최성혜



남성중창



김풍운 담임목사님



담임목사님 & 김연숙 사모님



커티스 현악 사중주



송지원



연합합창대

3. 창립 40주년 기념 주일(2014년 10월 5일)



초대 강도영 목사님께 감사패 전달



김연숙 사모님, 정정자 사모님



김풍운 목사님, 강도영 목사님, 정정자 사모님

4. 창립 40주년 기념 체육대회(2014년 10월 12일)





## 교회 연혁

**1974**

8월 4일 강도영 목사 외 90명이 미국제일 침례교회당에서 독립 교회로 창립

**1975**

7월 20일 여전도회 조직

**1977**

3월 27일 제1대 장로 장립: 김학륜, 유홍엽(취임), 제1대 협동장로: 조정수

12월 4일 청년회 조직

12월 11일 대학청소년부 조직

**1978**

2월 12일 제2대 장로취임: 조정수, 제1대 권사취임: 김귀점, 이삼순, 최경순

**1979**

2월 25일 제2대 권사취임: 권응호, 김초옥

**1980**

2월 24일 남전도회 조직

**1981**

2월 15일 제3대 권사취임: 심재희

**1984**

7월 1일 강도영 목사 사임

11월 18일 성기호 목사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

**1985**

1월 6일 제2대 협동장로: 오상백

2월 3일 성기호 목사 위임(90. 2. 18 사임)

**1986**

1월 19일 권성수 강도사 부임 (86. 7. 20. 사임)

8월 3일 제3대 장로취임: 오상백, 제1대 집사장립: 김영옥, 제4대 권사취임: 최석생초

9월 7일 이명한 전도사 부임(87.3.29 사임)

12월 21일 양옥선 권사 명예권사로 은퇴

**1987**

4월 6일 김선만 전도사 부임(88. 12. 4. 사임)

**1988**

6월 12일 현 소재 교회 건물 인수

8월 7일 입당예배 드림, 함한표 협동목사 취임(89. 10 사임)

제4대 장로장립: 김영옥, 제3대 협동장로: 이형성 장태인, 제2대 집사 장립: 신일구, 이병익,

이일성 제5대 권사취임: 은종국

12월 8일 강신광 전도사 부임(95. 6. 30 사임)

**1989**

- 1월 22일 최봉수 전도사 부임 (92. 9. 13 사임)
- 2월 22일 교회 화재로 예배당 일부 훼손
- 9월 3일 본당 신축 및 교회 수리를 결의

**1990**

- 2월 11일 제5대 장로장립: 신일구, 이병익, 이일성, 제3대 집사장립: 김내섭, 이건설, 조 승
- 제1대 원로권사: 권응호, 김귀점, 김초옥, 심재희, 제6대 권사 취임: 이숙자, 이옥남
- 6월 3일 제4대 협동장로: 이수호
- 7월 1일 김풍운 목사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 교회 신축공사 기공예배 드림
- 11월 25일 교단 가입을 결정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 12월 27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필라노회를 통하여 교단 가입

**1991**

- 2월 3일 제4대 집사장립: 오수건(취임)
- 7월 7일 신축성전에서 입당예배 드림
- 12월 1일 성전봉헌 및 김풍운 목사 위임예배 드림
- 12월 15일 유영택 전도사 부임(93. 7. 25 사임), 지정일 전도사 부임(93. 8. 8 사임)

**1992**

- 1월 5일 영어예배시작

**1993**

- 9월 26일 실외 어린이 놀이터 (고 김초옥 권사 기증) 실외 농구장 준공 예배
- 10월 3일 이지원 전도사 부임(94. 8. 28 사임)
- 10월 31일 제 6대 장로 장립: 이건설, 조 승, 제5대 집사 장립: 김건재, 김기일, 김성우, 신채구, 윤한보, 이부생, 이영석, 이정수, 이풍영, 전찬구, 조용구, 최현진, 송정현(취임)
- 제7대 권사취임: 김인순, 박화자, 신정숙, 안순희, 이계예, 이봉희, 정복득, 조동덕, 황원경
- 12월 5일 변창욱 목사 부임(96. 2. 29 사임)

**1994**

- 1월 1일 이승우 전도사 부임(2000.9.12 목사안수, 2002. 12. 29 사임)
- 11월 6일 교회창립 25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1995**

- 9월 3일 강일진 전도사 부임, 이경은 전도사 부임(98. 9. 13 사임)
- 12월 17일 교회 이름 변경 결정
- 12월 24일 교회 이름을 백스카운티 장로교회로 결정

**1996**

- 1월 1일 교회 이름을 백스카운티 장로교회로 사용 시작
- 4월 1일 송상현 부목사 부임(97.12. 14 사임)

**1997**

8월 1일 유용석 전도사 부임(2000. 2. 27 사임)

**1998**

1월 1일 나미영 전도사 부임(98. 12. 27 사임)

6월 22일 소그룹 사역 시작

7월 12일 박상돈 전도사 부임(99. 9. 14 목사 안수, 2000. 5. 28 사임)

10월 1일 한세영 전도사 부임(98. 12. 27 사임), 이영준 전도사 부임(2002. 4. 28 사임)

12월 27일 오상백 장로 은퇴

**1999**

5월 16일 제자반 1기 수료:

8월 8일 교육관 건축 기공 예배

9월 26일 소그룹 사역 시작 (23그룹)

10월 17일 제7대 장로장립: 김내섭, 제6대 집사장립: 이건희

12월 26일 이병익 장로 은퇴

**2000**

5월 14일 장석창(고등부)전도사 부임(2001. 12. 31 사임)

7월 2일 제자반 2기 수료: 강지원 김희 손영복 안병민 이미경 이윤성 이주영

9월 17일 강윤구(중등부)전도사 부임(2003. 6. 29 사임)

11월 5일 교육관 헌당 및 임직 예배

제7대 집사장립: 최광훈, 이윤성(취임), 제8대 권사취임: 김경숙 김의순 모인옥

12월 31일 이일성 장로 은퇴

**2001**

2월 25일 강효석 지휘자 사임

4월 1일 James Alderman(교육 및 EM)전도사 부임(2001. 12. 31사임),

이승찬 지휘자 부임(2010. 3. 16 목사안수, 2010. 8. 22 사임)

10월 28일 제8대 장로장립: 김성우 최현진 김건재 이영석, 제8대 집사장립: 이종만, 최차경(취임) 제9대

권사취임: 김양순 노후분 심보희 황형자 김정희(취임)

12월 9일 제자반 3기 수료: 박순웅 백충현 손정해 신상규 심재우 안은숙 원혜옥 조미래 조숙 최복순

**2002**

1월 6일 김정훈(고등부)전도사 부임(2005. 7. 31 사임)

12월 1일 류지혜(초등부)전도사 부임(2014. 1. 26 사임)

12월 29일 김내섭 장로, 김영옥 장로 은퇴

**2003**

5월 1일 광청규 목사(부목사)부임(2007.7.31사임), 정재동(청년부)전도사 부임(2003. 7. 31 사임)

6월 1일 제자반 4기 수료: 김명석 김중보 김철우 김흥기 문정길 안태옥 유인국 조현일 최환식

7월 13일 이계수(중등부) 전도사 부임(2003. 12. 28 사임)

10월 5일 양선배(유치부)전도사 부임



**2004**

- 1월 4일 김성중(대학청년부)전도사 부임(2004. 9. 26 사임), 제5대 협동장로: 운영석
- 10월 17일 강운구(EM사역) 전도사 부임 (2007. 3. 13 목사 안수, 2010. 6. 27)
- 12월 19일 제자반 제 5기 수료: 김석환 김재영 신상철 황유라 신용철 신은영 양창모 양정은 이용표 이은우 이화기 이옥선

**2005**

- 1월 2일 제 6대 협동장로: 이원태
- 2월 20일 이광원(중등부)전도사 부임(2005. 8. 28 사임)
- 8월 7일 조성주(고등부)전도사 부임(2007. 7. 31 사임)
- 10월 2일 제9대 집사장립: 안병민 김철우 최환식 양원호, 제10대 권사취임: 신희기 최승진 이해순 윤성임(취임)
- 10월 9일 이상협(중등부)전도사 부임(2009. 9. 22 목사 안수, 2011. 5. 29 사임)
- 12월 4일 운영석 장로 시무장로투표

**2006**

- 1월 1일 신일구 장로 은퇴, 제9대 장로취임: 운영석(취임)
- 12월 17일 제자반 제 6기 수료: 광명자 광순일 김인숙 박수인 유택환 이진우 임미아 장순면 장진희 조재형 최정희

**2007**

- 1월 7일 이건상 장로 은퇴, 제7대 협동장로: 김정인
- 제1대 명예권사: 김두옥 김정순 방재옥 손점녀 오임분 이옥섭 한인덕
- 8월 1일 성종근 목사(부목사)부임(2014. 6. 22 사임)
- 노성화(고등부)전도사 부임(2009. 9. 22 목사 안수, 2010. 9. 26 사임)
- 8월 5일 제8대 협동장로: 공근준, 장 철

**2008**

- 1월 6일 조 승 장로 은퇴, 신채구 집사 은퇴
- 제2대 명예권사: 김계향 김연임 부인옥 이영이 Ms. Black
- 10월 5일 제10대 장로장립: 양원호, 제10대 집사장립: 계명환 김종보 김건엽, 제11대 권사취임: 신종열
- 12월 21일 장 철 장로 시무장로투표
- 12월 28일 운영석 장로 은퇴, 제11대 장로취임: 장 철

**2009**

- 1월 4일 박반석(EM)전도사 부임(2013.3.19 목사안수), 제3대 명예권사: 윤인숙
- 제자반 제 7기 수료: 김병석 박상현 박 운 배성준 이동식 이종성 이종일 장 철 전병직 정태인 차준상
- 9월 13일 제자반 제 8기 수료: 김경미 박미화 이은숙 이현아 이현하 이효진 장은주 전선화 정혜정 차예숙 한건필 한금자 황준호
- 12월 29일 제9대 협동장로: 조정환

**2010**

- 1월 3일 김성우 장로 은퇴, 김기일 이정수 이종만 집사 은퇴
- 3월 1일 이승우(교육/교구) 목사 부임

8월 29일 제자반 제 9기 수료: 김영선 김영신 신동웅 신성임 윤회진 이금주 이명석 이봉무 이용성 이우현  
 10월 3일 최세훈(고등부)전도사 부임, 제11대 장로장립: 김철우 최환식, 제11대 집사장립: 강성문 심재우  
 유택환 이진우 이화기 전병직 조동호 조현일 최정희 황준호, 제11대 권사취임: 계미경 고영애  
 김은희 김진희 박순천 신현숙 오정선미 이 영 장은주 정정해 최미경 황향순  
 12월 26일 최현진 장로 은퇴, 이풍영 집사 은퇴, 신정희 권사 은퇴

**2011**

1월 2일 제10대 협동장로: 김용완  
 6월 5일 제자반 제 10기 수료: 민정숙 민종기 오경숙 이강훈 이금선 이인혁 이인희 이재혁 이주영  
 장선민 조나남 진창선  
 7월 1일 Thomas Chang 전도사(EM) 부임, (2011. 10. 23 목사안수)  
 12월 25일 이의순, 이보희, 신흥기 권사 은퇴, 제 4대 명예권사: 배장수 강정애

**2012**

1월 1일 제11대 협동장로: 박찬국 김경범 허우강 김인출  
 8월 12일 제12대 협동장로: 이규성 양찬모 조성은, 협동집사: 고광울 박노홍 협동권사: 이경애, 당명자  
 9월 16일 제자반 제11기 수료: 고경원 고광울 김명옥 김학제 김혜원 박노홍 박명희 백애경 백태섭 양명숙  
 양찬모 우영란 우형원 정기철 정민제 정춘영  
 10월 7일 제12대 장로장립: 김건엽 안병민, 제12대 집사장립: 김기환 이동식 이종성 이종일 정태인  
 제12대 권사취임: 박은자 박현진 오경숙 정혜정 조용실  
 12월 23일 김건재 장로 은퇴, 김인옥 김경숙 윤성임 권사 은퇴  
 12월 30일 제13대 협동장로: 김경철, 협동권사: 김미혜, 제5대 명예권사: 김군자 김숙경 하여자

**2013**

10월 13일 제자반 제12기 수료: 강인성 강태예 강혜숙 김인출 박일호 박현진 백진호 소신일 소혜경 심선미  
 유주연 이도찬 이영금 장정희 전명순  
 12월 30일 장 철, 조정환 장로 은퇴, 김은희 권사 은퇴, 협동권사: 한희숙, 제6대 명예권사: 김인희, 이순형

**2014**

3월 2일 홍윤미(초등부)전도사 부임  
 5월 31일 창립40주년 기념 경로잔치  
 8월 3일 제자반 제13기 수료: 김태의 김희영 민선여 박선미 정명희 정인조 차애순 한두석 한두희 한미정  
 황보혜란  
 10월 4일 창립40주년 기념 음악회  
 10월 12일 창립40주년 기념 체육대회





창립 후 10여년간 몸 담았던 미국교회



1978년 유치등부 꿈나무들



1985년 성기호 목사 위임식



1975년 첫 야외예배



1988년 화재수리 후 예배



1990년 7월 1일 김풍운 목사 취임예배



1990년 새 성전 초기 모습



1990년 12월 새 성전 앞에 모인 온가족



1991년 12월 새성전 봉헌 및 김풍운 목사 위임예배

삶과 믿음의 이야기

#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1서 4:16)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4-7)

인자가 온 것은 설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 발자국



김철우 장로

며칠 전 눈이 온 후 공사 예정지를 찾았다. 평소처럼 설계도면을 보며 위치를 찾으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므로 틀림없이 며칠 전 다녀간 측량사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눈에 선명하게 나 있었기 때문이다. 도면 보지 않고 구불구불 그 발자국을 한참 따라가니 역시나 눈발에 설치해 놓은 측량 말뚝이 보였다. 측량사는 GPS를 따라가므로 나는 그 측량사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왕좌왕할 이유도, 내 스스로 도면을 보며 고민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우리 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국만 쫓아가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에 틀림없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 노중에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 눈이다. 눈이 오면 춥고 미끄러워 더디 갈 수 밖에 없지만, 발자국을 선명히 볼 수 있어 좋다.

눈에 난 발자국을 따르려면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만 한다. 어떤 곳에 이르러서는 발자국이 희미하다. 어떨 땐 야생동물들의 발자국과 섞여 분간하기도 어렵다. 그럴 땐 몸을 숙이고 자세히 들여다 봐야만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발자국을 놓치기 십상이다.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자국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이쪽저쪽 발자국을 찾아 허둥대선 절대 안 된다. 그러다 보면 방향감각을 상실해 완전히 길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땐 발자국이 마지막 끊어진 곳에서 다시금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 그래도 발자국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그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한 달이 되든, 수년이 되든... 그러다 보면 반드시 다음 발자국을 보여 주실 것이다. 지나고 보면 기다린 시간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바른 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목적지에서의 기쁨이 노중에서의 고단함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치있는 여정이다. 믿음의 길은 내가 GPS를 들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예수님의 발자국만을 묵묵히 쫓는 것이다.

또 눈이 올 것 같다. 춥고 미끄럽겠지만 발자국이 더 또렷이 보일 것이므로 분명 감사할 일이다.



## 깊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김건엽 장로

“한량없는 은혜~ 깊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찬송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96년 7월 미국에 처음 아내와 함께 와서 오늘의 예지와 예찬이에 이르기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크고 풍성하였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에서도 믿음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그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먹이시며 가르치시는 담임목사님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권면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하였음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부족한 저희 부부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축복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 모두는 주일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주일을 온전히 교회에서 지낸 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함이 저희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수요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는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노력한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자리가 외롭거나 힘이 들거나 어렵더라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생활을 감당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며, 주일은 예배만 드리고 쉬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므로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믿음의 마음은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성실하면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임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참 기특하다고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찬이도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였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쉬기를 원하였지만,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주일 아침 일찍 저희와 함께 교회에 와서 1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친교를 위하여 손수 테이블과 의자를 셋업하는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축복하였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능력과 응답은 어메이징 하였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니다. 참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더욱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2015년 새해를 열면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저희 가정의 2015년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며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희 가정은 거창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보다,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기들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를 잘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매일의 삶을 영위하여 같은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신앙은 평소 때가 중요하다



허우강 장로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근거로, 자신이 어떤 환난에 처할 때 주님께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잘 만들어지며 살면 환난 때에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평소에는 제 멋대로 자신의 육성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해서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살면 그 말씀에 의해 지혜와 능력과 도덕이 자기 속에서 자라서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그 영적 능력으로 자신이 당한 환난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평소에는 제 멋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교회나 기도원 등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리도 없고, 그런 사람은 육적인 환난 밖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또한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먼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이니 떨어진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육적인 환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이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런 상태의 부르짖음은 부르짖는 그 자체도 실은 환난에 처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에는 육적 세상적 환난이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 오는 환난이 있는데, 육적인 차원의 환난 밖에 모른채 자신에게 닥친 육적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환난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 환난을 통해 영적 신앙의 차원으로 그 사람을 올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관심에도 없이 그 육적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있으니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자체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환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영적인 차원에서 산다고 하면 속에서 늘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그 현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과 환경을 만나도 그 사건 환경의 소산이 되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하면 남 보기에 평화롭고 부요한 처지인데도 오히려 환난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잘 다듬고, 하나님의 옳은 것으로 잘 만들어져 나가면 그 사람에게 외부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닥쳐도 그걸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옳게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정



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성도들이 부르짖으면 들어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세상적, 육적인 것을 위해 부르짖고 있으니 여기에는 알맹이 신앙정신과 사상도 없고, 주님과 의사적으로 친근 친밀하지 못한데 어찌 그런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가지고 말을 했고, 예수님도 그런데 무엇이 달라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리새파 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죽이게 됐을까요? 바로 바리새파들의 교훈이 문제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가 서로 통하지를 앓으면 흔히 말하기를 ‘너는 네 방식대로 믿고, 나는 내 방식대로 믿자’고 합니다. 또는 상대를 향해 ‘너는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믿느냐, 너만 잘 믿는 것이냐, 네 말대로라면 오늘날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것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옳은 소리를 들으면 양심 속에서 ‘내가 그 말대로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해야 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자기의 이질적인 신앙을 움켜쥔 채 자신이 추구하고 소원하는 종교적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 계속 진리와 전혀 판판으로 가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삼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훈의 목적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을 입힌 것도, 우리를 구원해서 바로 그 좋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사건과 환경을 주셔서 훈련 연단을 시키는 것도 모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입혀 주려 하심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으로, 하나님과의 단일성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목적을 기준과 잣대와 표준으로 삼고, 그런 사람이 되는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 세상에서 부자 되자, 크게 되자, 종교계에서 영웅이 되자’ 하는 세상성 물질성에 속한 정신으로 믿는다면, ‘너는 네 식으로 믿고, 나는 내 식으로 믿다가 천국에 가자’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예수님께 통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질적으로 통하면 선이고, 통하지 않는다면 악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지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옳은 신앙지식에서 열심도 나오고, 부지런도 나오면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바로 이 신앙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아니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이방신관의 정신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들어가는 것만큼 신앙이고 옳은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환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잡고 환난을 주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도 항상 평소에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드립니다.



## 새교우 섬김



양찬모 장로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외진 곳에 교회를 세워 주시고 그물로 한꺼번에 담아 교회를 부흥시켜 주지 아니하시고, 낚시질하듯 한 분 한 분 40년간 보내주셔서 지금의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 교우와 새로 오는 교우의 교류를 통하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지속적으로 40년간 이루어진 교회로, 기존 성도들이 새 교우를 잘 섬김으로 새 교우가 교회에 잘 정착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라는 의미로 새 교우를 섬기는 시각으로 볼 때 모범적인 교회라 생각되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 교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하고, 새 교우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서 새로 오시는 교우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돌이켜 보며 준비하는 일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새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으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 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새 교우 또는 새 가족 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새로 믿음을 시작하는 분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한 교인, 회심한 교인, 타주나 한국에서 이주하거나 개인적 이유로, 자의 또는 타의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시는 분,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처음 교회에 오신 분, 교회에 관심이 있어 알고 싶어 하는 분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한 모든 분을 새 교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새 교우 섬김위원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와의 관계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서나 믿음생활 잘 할 것인데 무슨 도움이 필요할까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오는 것 이상으로 상당한 결단이 있어야 하며, 오랜 시간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며 많은 상처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섬기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도우려고 힘쓰는 것은 교회의 수적인 성장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새 교우가 중요한 이유는, 새 교우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성장하지 않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전도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새 교우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새 교우가 오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새 교우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안정된 교회에서 몸에 익숙하고 편안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낯설은 사람이 와서 기존의 질서와 다른 이질적인 모습을 보며 불편하게 받아드리지 않고,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영접하여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며 섬긴다는 것은 믿음에 큰 도전이 되며, 이러한 도전은 우리의 믿음을 성

속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시작한 초신자를 가정에 막 태어난 젖먹이를 온 식구가 기쁨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아이를 키우듯이, 온 교회 가족들이 교회의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모든 변화를 기쁨으로 받아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사랑과 관심과 친절로 가능한 모든 믿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노력하며, 미성숙함과 이질적인 모습을 포용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초신자에 대한 섬김은 믿음에 필연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암초가 많고 파도가 심한 위험한 바닷가에서 배가 자주 난파되어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몇 사람이 뜻을 같이하여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난파선 구조대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헌신된 구조의 일은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뜻있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아름다운 사교클럽 하우스를 건축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는 사교와 교제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생명을 구하는 구조대의 일에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뜻을 합하여 난파선 생명 구조의 일을 다시 시작하였고 세월이 지나 또 하나의 클럽 하우스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그 해변가 주변에는 수많은 클럽하우스가 세워지게 되었고 더 이상 아무도 생명구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 뜻있는 생명구조의 목표를 잃어버린 “난파선 구조대”의 글처럼, 새로운 도전에 따른 변화의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드리지 않고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사역의 본질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새 교우와 기존교우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며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하여 좀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처지, 남녀, 나이, 직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새 교우는 자신의 필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에 교회에 오게 되며 (영적, 육적인 필요, 지리적, 자녀, 교육, 취미, 등등) 교회 정책에 우호적인 편이나 교회 역사나 전통에는 무관심한 편입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에 개방적인 편이며, 예배와 설교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본 교회 홍보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교인은 교회 안에 깊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자신의 필요와 관계없이 출석하며, 교회 정책에 자기주장을 반영하려 하며, 청춘을 바친 교회에 남다른 애착과 애정이 있으며, 전통을 세워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 정책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앞세워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교우들의 오랜 세월의 지속적인 헌신과 봉사는 교회의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되어 교회를 안정되게 하며 새 교우를 이끌어 주어 교회에 새로운 변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변화 되며 변화하여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교우와 기존 교우가 서로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회가 더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인 물은 새로운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반드시 썩게 되는 것입니다.

새 교우에게 관심있는 교회로는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교회, 즉 교회에 등록한지 오래 될수록 교회에 더 많은 장점,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새 교우는 교회 선택에 자신을 갖게 됩니다. (교회 등록 5년 차는 5 가지, 10년 차 10 가지, 30년 차 30 가지 교회를 쉽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화한 분위기가 있는 교회에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어 안정되게 정착하며, 영혼사랑에 열정이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 상처난 영혼이 치유 받으며, 선교와 전도가 활발한 교회에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구제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에 신뢰를 갖게 됩니다.

새 교우가 교회를 떠나는 일반적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 무의식적인 행동의 결과이지만 새 교우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영순위는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현상입니다. 자기 볼 일 보기에 바쁜 모습은 새 교우에게 소외감을 주며, 자신이 소외된 곳에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외에 딱딱한 예배, 깊이 없거나 어렵고 지루한 설교, 많이 가진 자

(배운 자)에 대한 우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기존 신자, 소속될 소그룹의 부족으로서 목장, 성경공부, 기도 모임 외에 취미나 전문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그룹은 매우 효과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관계된 그룹이 많을수록 교제의 기회가 많아지며 교회에 정착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고 정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새 교우를 교회에 정착 시키는 데 성공하려면, 새 교우는 기존 교우들의 생각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교우는 교회에 대한 자존감을 갖추는 것이 새 교우에게 좋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에 대한 자부심, 교회 성장에 대한 확신, 철저히 잘 준비되고 질서있게 진행되는 교회행사, 온 교인의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에 열심인 모습 등 기존 교우들의 교회에 대한 긍정적 생각과 행동은 새 교우로 교회를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새 교우를 위해 기도하여야 하며 목회자나 새 교우위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 교우를 대하는 자세로는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하며, 대화를 유도하여 주며, 가능하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고, 친절함 도움을 주되 사랑으로 대하여 주며, 칭찬에 관대하고 비판에 신중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의견을 존중함으로 관심과 인정을 받는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옳아도 (이성) 기분이 (감정)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부족해도 좋은 느낌, 진실한 느낌을 받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지만 감성으로 결정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친절하고 진실한 관심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떠나서 진정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것 이기는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올해 새 교우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 삶



부태형 집사

우리나라 고전(古典)에는 40 세 나이를 불혹(不惑)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불혹이란, “보고 듣는 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라 되어있습니다. 내 아니 이제 어느덧 80 이 되었으니 불혹의 나이의 두 배가 넘도록 산 셈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 감격하지 아니하고, 슬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귀중한 것을 보고 탐내지 아니하는 삶, 그런 것이 불혹이라면 그건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느껴지곤 합니다. 허나 진정한 불혹의 나이란 뜻은 이제 살만큼 살았고 경험도 많이 쌓였으니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을 가지고 성숙된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할 나이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라 생각 됩니다.

지난 날 나에게 있었던 읽은 책이나 신문에서 읽었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씀드리려 합니다.

### 제1화(第 1話)- 요양소

이 이야기는 어느 영국작가가 쓴 단편소설입니다. 어느 요양소에 16 년 전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 위, 아래 층에 살고 있는 두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래 층에는 이 요양소를 자기 집이라 여기고 떠나고 싶지 않은 60 이 넘은 노인환자이고, 바로 그 위층 방에는 바이올린을 즐겨 켜는 40 대 남자환자였습니다. 아래 층에 사는 노인 환자의 한 가지 고충은 위층에서 들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수면과 휴식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하는 것이고, 위층 환자는 할아버지가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더욱 신이 나서 연주에 열정을 쏟습니다. 서로가 싫어하고 다투면서 16 년의 세월을 함께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죽게 되고 그 노인의 죽음으로 음악가는 더 이상 연주를 할 열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의 주치의사는 음악가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멈추게 되면 생명도 끝나게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서로가 다투고 방해하는 상극(相極) 관계가, 실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하고 생존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협조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상태란 이해할 수 없는 변화가 많아서 우리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북돋워주기도 합니다.

### 제2화(第 2話)- 낸시 레이건

레이건 전(前) 대통령과 그 아내 낸신 여사에 관한 신문기사입니다. 그들은 역대 백악관 주인공들 중 가장 사이 좋은 최고의 커플(couple)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낸시 여사는 “결혼이 50대 50의 파트너십이라 생각치 않고 어느 쪽이든 80대 20의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80을 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으며, 노년에 치매가 걸린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결혼이란 50대 50의 평등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주는 것은 손해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라 여깁니다. 또 그 부모들도 “그래 너가 잘 쳐주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것이

부부관계를 순탄하게 유지하는 넓은 마음이다” 하기 보다는, “너가 무슨 죄인이나? 초장에 버릇을 잡지 못하면 평생고생이니 알아서 해라”고들 흔히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없이 끝까지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화(第 3話)- 대화(對話)

대화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고 들으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듣는다는 말에는 청취(hearing)와 경청(listening)이 있습니다. Hearing은 일 하면서 라디오나 나무에 앉아 있는 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단순히 귀로 듣고 그저 흘려버리는 것이고, listening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Listening 함으로 서로의 오해도 풀고 대화가 성립 되는 것입니다. 흔히 다투는 것을 보면 상대방의 말을 listening 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말만 하면서 그 자신의 말에는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정과 오해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얼마 전 집 밖을 나갔습니다. 늦가을의 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거기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있었습니다. 길을 걸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에 싸인 가로수가 아름다웠고, 멀리 높이 보이는 푸른 하늘과 그 위에 흘러가는 흰구름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늦가을에 서 있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지나간 많은 사연들이 떠오릅니다. 주위에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거기에서 서로 부딪치며 또 사랑하였던 나날들, 그 속에서 내 인생은 성숙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혼자서 달려간 삶은 성공한 인생은 될 수는 있어도 아름다운 삶일 수는 없습니다.

### 제4화(第 4話)- 침묵의 의미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때로 나도 침묵해야 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사전적 의미는 “말을 않고 가만히 있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차원이 높고 뜻이 깊은 침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카톨릭 문학가 엔도 슈사구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작가가 포르투갈, 로마, 일본의 역사적 사료를 정밀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쓴 실화 역사소설이며 전세계적으로 심금을 울린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에 읽었기에 희미하게나마 기억에 남아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17세기, 신앙인으로 또 신학자로서 존경 받던 포르투갈인 페레이라 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 정부에 들려옵니다. 그 놀라운 뉴스를 믿지 못하는 그의 제자들이 그 진위를 알기 위해 일본으로 생명을 걸고 진입해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 됩니다. 그 중 주인공이 로드리고 신부입니다. 결국 그도 체포되어 고문 끝에 배교를 강요받게 됩니다. 배교의 절차는 예수님 얼굴이 새겨진 동상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검사관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 상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는 데 문제는 그의 배교거부 때문에 그대신 수많은 신자들이 죽어 나갑니다. 자신의 배교거부 때문에 고문받고 죽어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배교함으로 죽어가는 목숨들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위해서 신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둘 것인지 과연 어느 것이 참된 사랑의 행위인지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깊은 고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밟으라. 나는 밝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밟을 때 네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그때 로드리고는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만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해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침묵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죽어가는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예수상 앞에 섭니다. 예수님 상은 너무나도 많이 밟혀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 상을 밟는 순간

새벽답이 우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에서 침묵하는 예수님은 방관이나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괴로워하는 내용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침묵은 오히려 더 깊은 참여였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1월 잠 오지 않는 기나긴 밤에 드러누워서 떠오르는 생각을 두서없이 정리해가며 써 보았습니다.



## 우리 목장 이야기



김인옥 권사

김인옥 목장입니다.

저희 목장은 2010년 개편 당시 목장식구가 10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총인원 24명 (장로 3인, 권사 4인, 집사 12인, 평신도 5인)으로 증가했습니다. 교회 예배에는 1부에 다섯 가정, 2부에 한 가정, 3부에 일곱 가정이 출석합니다. 장기 결석자 다섯 명이 있지만, 이사하셔서 다른 교회에 가신 분까지 목장 모임에는 참석하셔서 평균 18-20명이 모입니다.

목원들이 목장 모임에서 목원끼리, 또는 목자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서로 교제하고,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인간본성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가 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들 합니다.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과 문제들이 생겼을 때 목원들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충고와 중보기도에 감동을 받아,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영향력을 주어야겠다'는 마음들이 생겼고 봉사하고 싶은 생각에 결단하며 동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에 문제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각 목원들이 개성이 강하고 또는 자기중심적이어서 쉽게 협력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임 안에는 고단한 이민생활에 지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어떤 일이나 내용에도 방관자가 되시는 분, 타협하지 않고 불화하고 목장의 화합을 깨뜨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익살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머를 통해 목장모임의 목적에서 벗어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우선은, 교회에서 마련된 교재를 중심으로 목원들의 신앙성숙을 위해 말과 행동을 삼가고 겸손하게 하여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임 시에 "목장모임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영적 은혜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을 희망하며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게 하고 지금, 또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 하시는지 등등을 나누며 자존감뿐 아니라 믿음을 갖도록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쪽으로 질문을 하며, 격려와 도전을 주면서, 삶에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 모임을 위해 모든 목원이 타목원과의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아름답고 견고한 목장으로 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목장 모임의 특색을 본다면

1.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시간이 달라 못 만날지라도 목장모임에는 꼭 참석합니다.



2. 주중에 수시로 카톡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은혜 받은 말씀이나 동영상을 나누기도 하며, 새로운 문제들을 서로에게 알리고 기도요청을 하며 “감사히 은혜 안에서 살자”고 격려들을 하십니다.
3. 기도 모임에서는 가정의 기도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심 기도하고 응답사례들을 나눕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서 인지 중보기도를 할 때 미리 순서를 정하지 않아도 분위기에 잘 맞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원하는 기도제목, 또 담임 목사님, 교역자님들, 선교사님들, 연약한 지체들 기도도 잊지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종 모임에 서로 연락하고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4. 목장 예배 장소는 각 가정에서 돌아가며 서로 자청해서 모이고, 음식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여 남은 것은 홀로 오신 분이나 연약한 지체를 우선으로 챙깁니다. 매달 목원들의 생일은 목자가 케이크를 준비하여 덕담을 나누며 생일을 축하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이 나눌 것이 있지만 지면상 줄이고 이렇게 목장을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사랑의 목장



정순금 집사

저희 교회를 벅스카운티 지역에서 40년동안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화목하며 섬기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영혼을 깨우쳐주신 김풍운 목사님께 감사 드리며, 이 교회를 부흥발전 시키는데 협력하신 부교역자님들을 비롯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은희 목장에서 5년 동안 화목하고 섬기는 교회의 작은 그룹에서 권찰로 함께 일했습니다. 저희 목장은 매달 있는 목장모임도 조직적으로 구성돼 있어서 질서정연하게 자기에 속한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특히 음악부장 집사님이 준비해 오신 여러 곡들을 힘차게 부르며 예배 분위기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지요. 성경공부는 김은희 목사님께서 재미있고 질서정연하게 잘 인도하며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자유롭게 질문도 서로 주고 받고 응답도 하면서 합니다. 또한 지난 한달 동안 기뻐던 일, 슬펐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체육부장 집사님 인도로 가벼운 몸풀기 운동을 한 후에 애찬을 나눕니다.

저희 목장은 작년 가을, 10월 둘째 주일에 포코노 산으로 야외예배에 갔습니다. 목원들 모두 아침 1부 예배를 마치고 어린아이들이 소풍갈 때 느꼈던 기분으로 교회에서 출발하여 2시간 정도 달렸습니다. 포코노 산 가까이에 닿을 무렵 도로의 양 옆 산등성이를 지나는데 뽀뽀하게 어우러진 오색 단풍과 높고 푸르른 하늘, 바위 틈에서 새어 나오는 맑은 생수, 뽀족하고 예쁜 돌로 고여있는 높고 낮은 산들, 깊은 산속에서 지저귀는 예쁜 새소리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했 습니다. 산중턱을 넘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니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는데, 믿음의 식구들이 잔잔한 호수가에 빙 둘러 앉아서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답게 물든 단풍나무 숲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대자연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며 즐기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리고 싶었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예배를 마치고 언제나 준비되신 김정인 장로님의 감사기도와 마무리 기도로 야외예배를 마치고 어두움이 깔릴 무렵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왔습니다.

또한 뉴저지 먼 곳에 사시는 공문선 권사님택에서 목장예배를 드릴 때에는 별장에 가는 기분으로 가지요. 공 권사님 택에 가면 장로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셨던 찬송가를 여러 곡 부르면서 공 장로님을 추모하는 기분으로 목장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진수성찬으로 베풀어주시는 애찬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갖지요.

여러 애찬들 중에도 여름철에는 김은희 권사님이 직접 콩국수를 맛있게 준비해서 베풀고 어느 때는 상싱한 대구로 매운탕도 준비해서 맛있게 목원들에게 대접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목장은 모두가 서로 베풀고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면 그리운 사랑의 목장이

랍니다. 목장 내에도 음악, 봉사, 회계, 체육부장 등등 각기 맡겨진 담당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요. 이 작은 그룹이 모여서 큰 교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그룹들이 평화롭지 못하면 어떻게 큰 교회로 부흥되겠습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벡스카운티 장로 교회에 속한 김은희 목장을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우리교회의 부흥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벡스카운티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



## 교회 창립 40 주년을 맞으며

신종열 권사



이 글은 교회 창립 40 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을 써야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의 의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써야 할까 하는 마음의 압박감을 가지고 2 주 정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면서 고치고 또 고치고 깨달은 내용들, 응답된 내용들을 더 하기도 하면서 쓴 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은 먼저 토요일 새벽기도회에 본당이 꼭 찰 정도로 많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민생활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 일 동안을 일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주일준비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둘째는 좋으신 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입니다. 초대 강도영 목사님, 2대 성기호 목사님, 3대 목사님으로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김풍운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으로 이승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며 가신 성종근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생수와 같은 말씀과 양들을 잘 보살피심을 늘 감사 드리며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됨을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릴뿐입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내고 보니 무뎠고 온순하며 변함없이 목사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따르며 잘 순종합니다.

넷째,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훌륭한 학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겸손한 모습들을 보면 귀한 분이 됩니다.

다섯째, 교회에 한 1년 동안 담임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나뉘지거나 분열없이 40여년 동안 평안하며 싸움이 없는 것이 안심이요 큰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능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신뢰를 주시며 동의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교회를 위하여 주방에서 힘들고 껌은 일, 부엌봉사를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또한 흐뭇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곱째,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중요한 일로 배후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무릎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들, 교회를 사랑하며 드린 기도들, 또 계속 드려야 될 기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매주 정성들여 만든 맛있는 점심식사와, 풍성한 음식들이 또 하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제가 2008 년에 권사로 임명 받을 때 어떤 권사가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몇 가지 응답을 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한 미래의 기도(prayer for the future of our church) 의 씨를 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기뻐고, 매년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교회를 위한 미래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년 해가 지날 때마다 생깁니다.

2015 년을 맞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고 기도할 내용이 너무도 많고,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하기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25 년동안 새벽제단을 쌓아왔던 것을, 25 년동안 드린 기도는 다 잊고 처음 부터 아무 것도 없는 새 장(章, chapter)으로 기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래하면 너무 익숙해서 무더진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쉬운 것이 편하고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도, 예배도, 믿음생활도 처음 할 때의 첫 사랑, 열정, 열심들이 십 년, 이십 년 하다보면 흐려지고 약해지고 무더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약 60 여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성인 600 여명이 넘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39 년째 다니고 있는데 처음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고, 미국인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중 Dorothy Black 권사님은 어린이들에게 음악도 가르치시고 주일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와 수고와 헌신하신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성가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십니다. 초창기엔 한국학교 교실도 없어서 복도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교실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40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주셔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크기가 교인의 숫자에 집중하여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먼저 예배를 돌아봅시다.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감으로 드러지는 예배 속에 회개의 영이 충만한 예배인가요?

가장 귀한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준비된 예배인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우리들의 죄를 살피는 회개가 동반된 예배인가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축제(celebration)인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높여드리며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Tommy Tenny 는 God's View(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예배란 우리의 손을 천국을 향해 드는 행복과 간절함이라” 고 합니다. 저는 이 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40 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며 무슨 말씀을 주실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의 여러 교회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못했다고 책망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만족하실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묻지 않아서, 사람의 방향대로 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개혁하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쭙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따분하고 답답하게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계속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말씀에 있어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말씀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인지 반드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영적인 열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가고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과 엎드리는 오랜 세월 없이는 시간이 10 년 흐르고 20 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5 년동안 새벽제단을 쌓은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꼭! 꼭!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40 년이 되었다고 마음을 놓고 무너지는 자세가 아니라 온 교회가 다시 모두 엎드려 무릎 꿇고 새 책의 새 장을 쓰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의논하는 기도를 드려 유창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경험도 많지 않았지만,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라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 건강하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그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교회되어 30 년 후, 40 년 후, 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교회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영적인 땀과 노력이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우리 교회를 내려다보시고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한 이 때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답을 드리겠습니까?



## 우리 아버지



박순천 권사

우리 집 큰방 벽에는 눈에 띄는 사진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 액자 속 위쪽 왼편에는 우리 아버지의 독사진이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오빠들의 아기 때 사진들 그 밑에는 언니와 나의 아기 때 사진들이, 제일 밑에는 가족사진, 그리고 오빠 군대사진 등등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 많은 사진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과 많이 닮은 아버지의 사진은 우리들에게 늘 아버지를 대통령처럼 높게 바라보게끔 했었다. 우리 아버지는 힘이 굉장한 장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시장에서 우리 동네 4동 언덕까지 쉬지 않고 곧장 걸어 올라오셨다는 엄마의 전설 같은 이야기.....

해마다 명절(설날)때면 아버지께서는 직장에서 생선 한 상자를 보너스로 받아오셨기 때문에 명절날 상은 온갖 생선 요리로 가득차곤 했었다. 어느 설날 아침이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방안 구석에 있었던 전등 코드에서 불꽃이 일어나 순식간에 불로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급한 김에 맨손으로 불 붙은 전기선들을 급하게 잡아당겨서 이리저리 세계 내리치셨다. 짧은 시간 안에 불은 아버지의 맨손으로 꺼졌다. 합선이었다. 온 방은 전기선이 타는 고약한 냄새로 가득차서 맛있게 먹던 명절아침 밥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그때 우리아버지는 어린 우리들에게 히어로(영웅), 용감하신 아버지로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하신 후 시골생활을 접고 부산으로 이사 오셔서 앞뒤로 산이 둘러싸인 조그만 언덕 마을에 있는 방 두 칸짜리 헌집을 마련하셨다. 마당도 엄청 넓어서 크게 자리 잡고 있던 장독간을 헐어서 큰 오빠랑 함께 벽돌로 손수 방 한 칸을 더 지으셨다. 하지만 오래된 집이라 밤이 되면 천정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쥐들의 발자국 소리로 요란했고, 또 깊은 밤중엔 창 너머로 으스스하게 들려오는 여우들의 우는 소리에 작은 언니랑 나는 담요를 뒤집어쓰고 무서워하곤 했었다. 앞으로 절이 있어서 스님들의 목탁소리와 염불 외우는 소리들도 잠결에 가끔 들려오던 것이 기억난다. 화장실도 마당 맨 끝 구석에 있어서 밤에 언니가 같이 가주지 않으면 소리 내어 울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 집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둘러싸인 요나의 박 넝쿨 덮인 초막집 같았다 할까? 아침에는 해가 떠오르는 찬란한 풍경을 볼 수 있었고, 정오가 되면 뱃고동소리와 함께 항구에 들어오고 나가는 배들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봄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서 봄나물들을 뜯어 한 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면 엄마는 맛있는 썩떡도 만들어 주셨다. 여름방학이 되면 뒷산에 올라가서 연못 안에서 올챙이들도 잡아 병에 담아오고, 매미 우는 소리 요란하게 들리는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싸 들고 온 도시락을 열어 동네 아이들과 함께 즐기곤 했었다. 한 번은 오빠와 언니, 동네 아이들과 함께 겁도 없이 산 한 고개를 더 넘어가서 독수리와 매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도토리를 한 자루에 주워와서 엄마께 드렸는데, 칭찬은커녕 위험한 곳에 갔다 왔다고 야단만 맞았다. 하지만 구역예배 때 도토리묵으로 한

상 차려져서 인기가 되었다.

우리 아버지는 부둣가 근처 기차역에서 힘든 노동일을 하셨다. 그리고 설, 추석과 같은 큰 명절날에도 꼭 일하시러 나가셨다.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의 어느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다. 작은 오빠가 아버지 일하시는 곳에 한 번 데려간 적이 있었다. 우리 집 언덕마을에서 30분을 걸어 내려가서 또 찾길을 건너고,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한 후 기차가 다니는 철로 다리들을 건너고, 또 건너서 멀고 먼 거리를 건너라 다리가 무척 아팠지만 아버지 뵈러 간다는 것, 또 용돈도 탈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참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그 먼 길을 매일 걸어서 출퇴근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곳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을 본 순간 그 신났던 마음은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아주 무겁고 강하게 보이는 기다란 쇠덩어리, 철 같은 것들을 어깨에 지고 다리를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걸어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어린 딸의 마음을 찡하게 울린 것이었다. “오빠,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 그지?” 작은 오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하시는 일이 정말 싫다고 했다. 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약하고 지친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늦은 퇴근길에도 우리 주려고 군고구마, 봉어빵 등을 사들고 오셔서 잠든 막내딸인 나를 깨우시던 아버지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지금도 가끔 거리를 지날 때면 버스정류장 벤치나, 혹은 길거리에서 멍하니 쓸쓸이 앉아계시는 노인들을 볼 때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다.

미국 오기 전 국제결혼서류 때문에 지금 남편이랑 아버지랑 마을 동사무소에 간 적이 있었다. 직원 한 분이 혀를 차며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한 마디 던지기를, “왜 하필이면 백인이 아니고 흑인한테 딸을 보내십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않으시고 묵묵히 서류에 도장만 찍고 조용히 나오셨다. 딸 때문에 주위의 이상한 시선들, 비판들을 다 받으신 아버지께 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나였다.

마지막으로 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늘 잊혀지지 않고 있다. 어머니 돌아가신 소식 듣고 한국에 갔을 때 어머니 산소 주위에 올라온 잡초들을 관절염으로 많이 휘어진 다리로 쭈그리고 앉으셔서 손으로 열심히 뽑고 계시던 모습이다. 미국으로 다시 떠나는 딸을 마지막인 듯 쓸쓸하게 바라보시며, “시방가면 또 오기는 힘들 거제? 나도 이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다. 니도 이제 또 한 번 더 볼 수 있을랑가?” 다리에 관절염이 심해서 늘 쑥으로 직접 다리에 뜸을 뜨시며, 쑥이 타며 연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눈을 꼭 감고 통증을 참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가끔 기억에 떠오르곤 한다. 그로부터 10년 후 아버지는 다리에 관절염이 심해서 걷지도 못하시다가 큰 언니의 정성어린 간호를 받으시다가 87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2000년 4월 부활주일 새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장례식이 지난 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낙원묘지, 어머니 산소 바로 옆에 누워 계셨다. 나중에 큰 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사람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 시신을 관속에 넣을 때 좀 거칠게 다루시는 것을 보고 그분들에게 불만스럽게 나무라셨단다. “너무 그러지 마라, 좀 살살해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시느라,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원로목사님 사모님 부엌일 돌봐주시느라, 어린 꼬맹이들이 많은 강도사님택 도우미 일하시느라 집을 많이 비우셨던 엄마를 아버지는 핍박도 많이 하셨지만 많이 사랑하신 아버지였다. 너무도 양반이셨던 아버지는 자존심도 강하셨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셔서 성경도 못 읽으시고 찬송도 못 부르신다는 이유로 아마 교회에 일찍 못 나가셨던 걸로 짐작된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다니시다가 주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대통령처럼 높게 보이셨던 아버지는 떠나가셨지만,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주위의 여러 작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던 아버지는 떠나가



셨지만, 이 세상 그 어떤 큰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가 내 곁에 늘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면, “오냐!” 하시고, “아버지 안녕히 다녀 오셨습니까?” 하면, “오냐!”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아버지께 드렸던 나의 인사말에 짧게나마 늘 대답해주셨던 아버지는 떠나가셨지만,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작은 믿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주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가 내 곁에 늘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 맛나는 것들을 주시려고 잠든 나를 깨우시는 아버지는 떠나가셨지만, 하늘의 만나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려고 우리의 잠든 영혼을 순간순간마다 깨워주시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가 내 곁에 늘 계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영원한 우리 아버지시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 여행이야기



김원연 권사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시청 건물 꼭대기에는 William Penn 할아버지가 떠나온 고국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서 있다. 고향을 떠나 온 우리 이민자의 모습 같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주신 회귀(回歸) 본능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삶의 숙제일 것이다.

1976년 우리 부부는 삼남매를 데리고 이민의 대열에 합류했다. 정말 무모하고 겁 없는 용감한 물결이었다. 그래도 그때 우리를 받아 준 미국 땅은 지금 보다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다. 한 3년 죽을힘을 다해 부부가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입주예배를 드리느라 파티가 잦았다.

문화충격과 과도한 노동, 외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모이면 서로 의지하고 정보도 교환하며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교회는 이민자들을 품어 주는 정말 피난처였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곳곳에 교회가 서고 부흥했다.

우리 식구도 낡은 중고차를 장만하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아이들을 태우고 여행을 시작했다. 광활한 미국은 한 없이 볼 것이 많고 우리를 설레게 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주를 넘고 국경을 넘으며 여행은 계속되었다. 여행은 중독이고 혹은 만성질환이라고 했던가? 이민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인지 우리는 시행착오로 위험한 일도 겪고 고생도 하면서 그래도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고 국경을 넘고 배로 비행기로 바다를 넘나들고 여행의 질도 차츰 상승되었다. 어느 가을에 단풍을 찾아 버몬트와 뉴햄프셔의 산을 넘고 캐나다의 퀘벡까지 멀고 먼 길을 다 돌고 우리 집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어느 곳 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집 주변에 든 것을 보고 웃었던 때도 있었다.

2,3 천년 혹은 5천년도 넘는 유적지며 웅장하고 놀라운 옛 성당과 궁전이며 중세기의 고풍스런 돌길을 헤매다가 먼지 묻은 여행 가방을 끌고 피곤한 몸으로 조그마한 우리 집의 현관문을 열고 돌아오는 그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은 정말 여행의 최고 절정이다. 돌아올 집이 있어 여행은 즐겁고 보람 있는 것이다.

찬송가 544장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 간 후에,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후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 놓고 ....

남은 나의 인생 여행 다 마치고 때 묻은 세상 짐 다 벗어 던지고 천국 문에 기쁨에 넘쳐 들어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여정을 인도해 주시길 오늘도 기도한다.



## 세상속에서의 주님 증거



황준호 집사

3일간의 출장 일정 중 마지막 순서만 남겨둔 잔뜩 찌푸린 오후, 집 떠나면 고생이란 옛말이 있듯이 늘상 해 왔던 일이었지만 조금은 나른한 오후라 빨리 끝내고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필라로 출발할 요량으로 약속장소로 향했다.

센터빌 Lee HWY전상에 자리잡은 큰 빌딩의 일부를 소유한 분이 기존에 있던 외국계 은행의 Commercial Mortgage Loan을 Refinance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나를 포함한 세 명의 직원이 건물 5층 회의실에 도착했는데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예사롭지 않은 규모였다. 이 건물 주인이 한국 분이란 걸 인지한 상태였지만, 생각보다 훨씬 젊은 여자분이었다. 이 분은 이 건물 외에도 6군데에 건물이 더 있어서 모두 7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각각의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규모면에서 엄청나고 미 주류시장을 Target으로 한 사업이었다. 젊은 분이 빨리 성공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더 중요한 건 설명 중간 중간에 “오늘의 자기가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었다. 우리 세 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으며,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즉 상대방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분의 생활 속에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좀 더 소개를 하자면, 어린 나이에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국에서 끼니를 잇기 위해 찾은 곳이 교회였으며,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었다. 약속 드린대로 조금의 여유가 생겨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했었는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하는 일마다 정말 기가 막히듯이 맞아 떨어지더라고 했다.

그는 중간 중간 하나님의 돌보심, 건져주심, 부어주심 등 대화 내용의 거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사치하는 건 아닐까 싶어 교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몇 년째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수익금의 대부분을 선교단체 및 종교기관에 정기적으로 보낸다고 하였다. 중국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건물 전부를 이런 비영리 기관에 기증할 계획이며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이 선한 일에 남편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업무상 Loan을 진행하면서 고객들이 운영하는 여러 모양의 사업장에 Site Visitation을 다녀보곤 했는데, 우선 규모면에서 이렇게 큰 곳은 아주 드물게 보는 경우이며, 무엇보다 교회가 아닌 사업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本心으로 증거하는 분은 처음이었다. 물론 지나가는 말로 한 두번 말씀하시는 분도 없진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비즈니스 내용보다 신앙간증하는 경우는 처음일 수 밖에.....

애당초 30분이면 끝나겠지 하고 시작했던 미팅은 2시간 반을 훌쩍 넘겼다. 그 중 대부분의 시간이 비

지니스 얘기보단 그 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는데 만남의 결과는 너무 좋았다. 앞으로 우리와 거래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모든 서류도 받았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많은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저 젊은 분이 저렇게 잘 되기까지는 그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고... 큰 성공의 비결은 바로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의 자세를 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지 돌아 본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괴리는 없었는지, 교회에서의 언행이 세상속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되고 이루어져 왔는지, 두 개의 다른 생활은 아니었는지를 되짚어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교기관에서 배우는 것 만이 교육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행동에서도 취할 것이 있으면 그가 어린 선생이요 신문에서도 나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으면 紙面(지면)이 선생이 되며 특히나 오늘처럼 훌륭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서 보고 듣는 산 간증이야 말로 가장 값진 배움이요 교훈이 아닐까 느껴진다.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이 분처럼 세상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아니 더 많이, 진실로 주님을 증거할 때 그 삶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참다운 삶이란 걸 알려준 뜻 깊은 오후였다.



## 1초 앞을 모르는 인생길



홍영애 권사

2014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다. 하늘은 푸르고 하얀 솜사탕처럼 예쁜 구름이 서서히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들은 땅을 향하여 사뿐이 내려앉고, 벌써 어느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져 벌거숭이 (아이 창피해) 가 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조금 있으면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무척 바쁘다. 아는 분이 농장에서 연어다 준 총각무로 김치를 담궈야 하고, 호박 넝쿨, 고추대도 정리를 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고 책상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글을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올해는 정말로 바쁜 한 해였다. 부활주일을 지내고 월요일에 갑자기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고 참 암담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억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머리에 스쳐 지나갔다. 남편이 버리는 나무를 얻어다가 연장창고를 만들고 피크닉 테이블을 만들었던 것, 집주인이 밭을 만들 수 있도록 마당 한 모퉁이와 담 밖에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 주었을 때 자갈을 골라내고 낙엽, 잔디 깎은 더미들, 야채와 과일껍질, 생선 머리와 내장, 멸치 다시 낸 것 등을 (교회 부엌에서 봉사하고 남은 야채찌거기는 모두 나의 것) 쏟아 부어 올게닉 농장으로 만들었던 일. 오이, 호박 집을 만들고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해 채소 씻은 물이 담 밖으로 흘러나가 가뭄 없는 우리 농장을 만들었던 일. 상치, 오이, 호박, 깻잎, 더덕, 부추 등(우리집 식탁의 효자들)을 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기념촬영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던 일 등... 지나가던 사람들이 파는 것이냐고 물어 볼 만큼 화분에 주렁주렁 달린 고추, 다들 멋있다고 칭찬하던 집의 텃밭, 올해는 좀 더 농사를 잘 지으려고 거름을 열심히 만들기도 했는데... 깨끗이 좀 살자고 남편 줄라 째짤이 카펫 뜯어내고 참나무, 단풍나무, 미루나무인 원목들을 사다가 마루도 깔고 (감독은 내가) 감사했던 일 (우리 부부는 기둥만 있으면 집 짓기도 가능?), 마루 깔고 나니 지붕에서 물이 새서 흥부 집 되었던 일 등등. 8년의 세월, 그 간의 추억이 차곡차곡 쌓인 곳인데...

1초 앞을 모르고 사는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을 실감하게 되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아파트는 갈 수 없는 형편이다. 내 재산과 (공업용 미싱 5대) 남편 연장 때문이다. 집 살 형편은 안 되고 집 렌트를 알아 봐야 하는데 마땅히 나오는데도 없고(교회가 멀면 안됨), 집값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한 칸 건너 같은 상가 아파트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8년을 지켜 본 우리가 괜찮은지 Township inspection이 끝나면 열쇠를 넘겨 주기로 하고, 6월 1자로 이사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웬 이사 짐이 그리 많은지? 8년동안 쌓인 게 이렇게 많을까?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머리를 써서 정리해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분이 도와주셔서 이사를 무사히 마쳤다. (도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사 후 남편이 호박을 먹겠다 하여 주인의 허락을 받아 다시 밭도 조그맣게 만들고 (내가 누워서 만세를 부를 만큼) 호박집도 만들고, 호박 3포기 심고 화분에 고추, 깻잎도 심었다.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되었을 무렵, 휴식을 취하려고 7월 4일 금요일에 New Jersey에 있는 Belmar로 낚시를 가기로 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우리는 우비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남편은 연고 (Triple Antibiotic Ointment)까지 챙겨 Belmar로 향하였다. 집 근처는 비가 안 왔지만 New Jersey쪽으로 가니 날씨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우리가 즐겨 낚시하던 곳에 도착하니 도로공사를 하는 중이라 간이화장실이 있었다. 멀리 화장실을 안가도 된다고 으근히 좋아하기도 했다. (나는 아닌데.) 주위를 둘러보니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 비가 안 왔으면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간단한 낚시 도구를 내리고 하는데 금새 빗방울이 굵어져 건너편 다리 밑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을 보니 11시 30분. 좀 이르기는 하지만 차 안에서 준비해 간 유부초밥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다리 밑으로 갔다. 비가 와도 걱정이 없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한참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낚시를 하러 왔다. 남편이 “우리만 이상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또 있네?” 하고 보니 한국사람들이어서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한 부부는 체리힐에서 오고, 다른 한 부부는 필라델피아에서 오셨는데 낚시는 처음이라고 하셨다. 그분들과의 담소 후 한참을 의자에 앉아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 심심해졌다. “고기들이 출장을 갔나? 입질도 하질 않네” 하며, 1시 50분쯤 바위로 깔려 있는 방죽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가려 일어섰다. 나름 조심스럽게 일어섰는데 갑자기 발 밑에 있는 무엇인가를 밟았는지 엉겁결에 미끄러지게 되었다. 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쿵! 하고 닿았다. 순간 ‘머리’하는데 넘어진 나를 보고 다리 밑에서 낚시하던 사람들과 남편이 달려왔다. 어느 분이 천천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반사적으로 빨리 일어나려는 본능이 있기에). 그분들은 나를 부축해 일으켜 놓고 응급조치를 시작하셨다. 남편은 차에 가서 연고를 가져오고 도와주러 오신 분이 여분으로 가져 온 아이 옷으로 형겁을 대신해 상처를 싸맸다. 낚시하러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은 간호사이고, 한 분은 목사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셨다. 그런데 지혈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피가 나왔다(나중에 남편 말에 의하면 “뽕” 하고 피가 솟아 나와 놀랐다고 했음). 다시 나를 의자에 앉혀 놓고 지혈을 하고 2-3 바늘 꼬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시며 짐을 챙겨주시고 부축해 차에 데려다 주셨다. “교회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가세요.”하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1시간 정도 걸려 St. Mary Medical Center 응급실에 도착하여 과상풍 주사를 맞고, 스테이플러로 3바늘을 찍었다(남편이 진짜로 스테이플러로 찍네? 했음). 집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Belmar에서 도와주셨던 분들 성함과 전화번호는 받아 왔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남편은 아기 옷 사주어야 하지 않나?) 선데이 토크에 나온 교회 목사님들 사진을 보아도 없었다. 7월 6일 주일인데 교회를 못 가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일주일이 되어서 Family doctor를 뵈고 스테이플을 뽑았다. 큰일 날 뻔 했다고 하면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하셨다. 담임목사님과 목장식구들 또 저의 사정을 아시는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아찔하다. 내가 병원에 누워서 사람들을 못 알아 볼 수도 있고, 남편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나라로...

일초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다.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순간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마음대로 샤워하고 머리 감는 일, 평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남편이 일주일 후부터 머리 감겨 주었음.)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 그곳에 주의 종과 간호사를 예비해 주시고 남편이 연고 챙겨간 일, 이사하고 남편이 싱크에서 연결해서 쓰는 작은 샤워기를 사다 놓으며, “어디 쓸데 있을 것 같아서 사왔어”, 했는데 머리 감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다시 사는 나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진실하며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드리며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간호해 주신 남편께도 감사, 감사) 그리고 Belmar에서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글을 읽게 되시면 215-500-240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가을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웃사랑은 사랑을 받아 주시고  
사랑의 언어 사랑의 축복이기에 사랑입니다



## 리브가 전도회장을 마치며



정순금 집사

화목하며 섬기는 교회를 바탕으로 이 지역사회와 뉴저지 인근의 주민은 물론 필라지역까지 한인교포들에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 영적으로 메마른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벅스 카운티장로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함을 먼저 축하 드립니다. 김풍운 목사님께서서는 전도하기 어려운 이 지역에 꾸준한 노력과 헌신으로 눈부신 부흥과 발전을 이끌어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자신의 삶을 증거하시고 훈훈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창립 40주년 기념하며 <믿음의 소리>에 글을 올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화목과 섬김을 교훈으로 양육해오신 존경하는 김풍운 담임목사님과 숨어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부교역자님들과 묵묵히 내조하시는 사모님들과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성전인 요 방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2013년 10월 마지막 주일, 저는 여행 중이라서 교회를 못 나왔고 11월 첫째 주일에 나왔더니 예배가 끝나고 점심식사 후 지나가는데 2014년도 리브가 전도회장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전 회장 허옥선 권사님께서 염려하시며 저에게 청원을 하셨습니다. 허 권사님은 2013년 저희 리브가 전도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봉사하신 모범 전도회장님이셨지요. 매월 생일을 맞이한 회원님들께 자비로 케이크와 예쁜 생일카드도 선물하셨고, 생일축하연과 함께 회원들을 연합하게 했지요. 그런데 무경험자인 저에게 전도회장을 갑작스럽게 권유하시어서 자격도 없고 믿음도 약하니 다른 회원을 찾아보라고 했으나 아무도 지원자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모습이 딱하게 보였습니다. 생각 중에 걸어가고 있는데 김인옥 권사님께서 도와줄 테니 해보라고 또한 한 번 권유하시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했지요. 교회출석만 하고 봉사도 안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으로 봉사하라고 맡겨주신다는 사명감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지요. **“모든 계획은 사람이 하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는 성경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침 담임목사님께서 그날 예배 때 순종과 충성에 관한 설교를 하셨지요. 순종과 충성은 모든 불만과 불평을 없애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 싹트게 하며 사랑으로 감싸줌으로 화목하고 섬기고 다투지 않는 교회와 단체와 사회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저는 지난 일 년동안 전도회 회장직을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요약해볼까 합니다. 먼저 월례회를 할 때, 사회자는 열심히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리브가 회원들 중에는 찬양대원이 많아서 찬양연습도 해야 되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분이 많지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데, 빨리 끝내라고 재촉하는 발언이나, 그 성경은 몇 번 들었으니 생략하라는 등의 말은 사회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지요. 상대방을 배려함으로 자기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날마다 깨우치고 몸소 행하려고 노력하며 예수님 향기를 풍겨서 항상 보고 싶고 만나면 기분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회원으로 생명록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



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실습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 돕고 친절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도회 모임과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더욱 발전하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뒤돌아보니 전도회장으로서 못다한 일도 많았지만 보람된 순간도 있어 다행입니다. 저희 리브가 전도회에서는 밀알 선교회를 후원을 하는데, 지난 12월에는 신정희 권사님의 주선으로 Dr.박영숙 집사님과 함께 밀알선교회를 방문하여 장애우들에게 크리스마스점심식사를 대접하고 격려해주고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과 필라 밀알선교 단장이신 이재철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잘 드시고 고마워하시는지, 베풀고 대접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기쁘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리브가 전도회가 어려운 단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리브가 전도회에서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성극 “모세”를 관람하러 갈 때 허우강 장로님과, 정남영 집사님의 운전자원봉사로의 도우심으로 즐겁게 랭캐스터에서 모세 성극을 안전하게 다녀왔던 것입니다. 경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12월에 재회의 미팅도 하고 사랑의 애찬도 나눌 수 있었지요. 송년파티도 리브가 회원님들의 정성 어린 협조와, 이삭전도회의 협조로 풍성 한 음식도 준비할 수 있게 됨도 감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성황리에 송년만찬도 할 수 있었고, 이삭 전도회에서 수고하시어 선물도 나누어 주셨고 이부생 집사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애써 주심으로 재미있는 빙고게임으로 즐겁고 화기애애한 송년파티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심도 감사 드립니다.

2014년 1년 동안 무사히 전도회장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특히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격려해 주신 신홍기 권사님,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인옥 권사님과 허옥선 권사님, 정기순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전도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해주신 리브가 전도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여행을 자주 가는 저에게는 월초에 항상 월례회를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해외로 여행을 가도 월초를 맞춰서 돌아와야 하는 책임감을 감수해야 됨을 생각하면서 2014년을 마무리 하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의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존경하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역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 어느 신출내기의 좌충우돌 적응기



이 영 권사

12월 초쫓 사건은 일어났다. 평상시 참 좋아하는 1부 찬양대 지휘자 김주영 집사가 하이 톤으로 지나가는 나를 불러 세웠다. “처음으로 권하는데 이젠 찬양대 들어오시죠? 찬양하다 보면 도리어 은혜 받습니다.” ‘아니, 찬양대라고?’ 속으로 당황하며 생각해 보겠노라고 하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나에게 은혜 받는다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다. 그 후 두 주일 지나 다시 나를 불러 세우면서 생각해 보셨냐고 묻기에, “그냥 좀 더.....” “언제까지요? 6개월, 1년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래야 기다리죠.”

머릿속으로 ‘아니면 말지, 왜 또 기다린다고 하나?’ 정말 부담스러워 앞으로 계속 모른 척하고 피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 그냥 부딪쳐보자, 은혜 받는 자리데. 주님! 지금 저의 모든 형편과 처지 다 아시죠?’라고 기도하며 다음 주일 이른 아침 연습시간에 합류했다. 그런데 먼저 악보를 보고 눈이 놀라고 말았다. 어디가 내 소리를 내어야 하는 부분인지..... 너무 오랜만에 접하는 난해한? 악보들. 이런저런 염려 속에 1부 예배 후 연습이 있다고 하고 쫄래쫄래 연습실에 따라가는 모두 아는 얼굴인데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Y 장로님이 어느 파트냐고 물으신 것 같다. 너무 송구하여 멜로디라고 하였더니, Y 장로님은, “멜로디가 아니라 소프라노예요.”라고 하셨다.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소프라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여 그렇게 대답했는데.

간식을 기다리고 먹는 찬양대원들의 모습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연습실의 약간 추운 듯한 기운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들이 예쁜 작은 새들 같다고 할까? 그리고 모두들 얼마나 친절한지 내가 놀라 다녔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다시 둘러보아도 한 분 한 분 믿음 좋고 훌륭한 찬양대원들로 보이는데 나는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다. 신년 첫 주부터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자칫 실수라도 할까봐, 완전집중. 나와 함께 시작한 신참 K 집사님께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신다. ‘아, 모두 잘 하는데 나만 어렵구나?’ 지난 주 폐회송 때 또 실수. 목사님의 축도 후 축도송이 나와야 하는데 나는 잠시 찬양대원임을 잊고 말았으니. 뒤늦게 허둥지둥. 아이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쯤 찬양을 통하여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까? 찬양의 가사들이 나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될 수 있을는지.. 신출내기의 갈 길은 멀고도 멀지만 순간순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 벽스카운티 장로교회 호산나 어린이 성가대



황순원 집사

10년 전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어디서 무슨 봉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초등부 어린이 성가대를 맡아 달라는 정 전도사님의 부탁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 성가대가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어린이 성가대가 하는 봉사도 많고 또한 학생들에게 주는 좋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호산나 어린이 성가대가 하는 봉사 및 어린이 성가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는 약 30명 가량의,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유년 주일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습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주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정도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으로는, 3개월 한번씩 둘째 주일에 Langhorne Gardens Rehab-ilitations and Nursing Home에 가서 2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돕습니다. 전도사님이 예배를 짧게 인도하시고, 호산나 성가대가 3-4곡을 외워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때도 때때로 참석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같은 행사 때 유년 주일학교를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가대를 통해서 아이들이 받는 많은 좋은 영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말씀, 성경이야기, 간증적인 가사들을 노래로 외워서 부르고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같이 찬양 가사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찬송가도 조금이나마 배워서 외우고 성경도 외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매주 계속 집에도 일찍 못하고 아이들과 노는 시간도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야하기에 이것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바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5학년 학생들은 돌아가면서 악보정리와 CD player를 맡아서 하며, 연습을 시작하기 전과 후 의자배치와 정리를 하며 봉사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성가대 같이 봉사하는 그룹에 어렸을 때 참가한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교회에 출석하고, 특히 교회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일꾼으로 성장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많은 발표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발표할 수 있는 발표력과 자신감을 심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편적으로 음악을 하면 받는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음악을 하며 정서가 함양이 되고, 또 많이 외워야 하니까 머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등,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아이들이 찬양을 하며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때때로는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교회에 어린이 성가대를 오래 전부터 허락해 주심이 너무 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기적(奇跡)을 바라지 마십시오



민승현 형제

**(살전4:11-12)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 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퇴근 길에 종종 주유소 앞 복권 누적금액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번 주만해도 그리 높은 액수가 아니었는데,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샀는지, 오늘은 아주 높은 금액이 적혀 있더군요. 이 세상엔 기적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가 봅니다.

기적, “Miracle”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왜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매일 놀기만 하고 공부도 하지 않은 수험생이 수능을 잘 찍어 명문대에 가고 싶다는 근거 없는 호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기적이란 현상은 실재(實在)합니다. 진원지 없는 지진이 없고, 출발점 없는 시작도 없듯이, 기적 또한 어딘가에 시작점이 있는게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기이한 지시를 오로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죠. 바로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진원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 안됩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 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마음 속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현재 상황이 답답하고 활로(活路)가 없어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해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도록 힘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저만의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더니, 기적같이 제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친척들이 저희 부모님을 뜯어말렸을 정도였죠. 하지만 선생님이셨던 저의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고 싶다는 한마디에 유학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재작년 8월 Temple University에 합격해 들어올 당시 무일푼에 편도 항공권 한 장만 끊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근거없는 호기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유

학생은 학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일년에 학비만 거의 4만불이죠. 솔직히 돈이 한푼도 없으니까, 4만 불이란 돈을 피부로 와 닿지도 않더군요. 걱정 근심이 많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 남들 앞에서 궁핍하지 않을 것을 믿고, 주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2015년 1월, 일년 반이 지난 지금 전 Temple University에서 4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반을 돌아보면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등학교 교환학생 시절부터 호스트를 해주신 미국인, Robert 아저씨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숙식(宿食)을 해결해주셨습니다. 다시 찾아간 H-Mart에서는 선뜻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비를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 장학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제가 입학하던 학기부터 학비를 전부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학비가 연장되는 제도가 생겨 학비를 다달이 내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교회분들의 도우심으로 벅스카운티장로교회 장학금을 받게 되어 부족한 재정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입니다. 그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자의 분량입니다. 24시간이 모여 하루가 만들어지고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일년이 되고, 그렇게 ‘인생(人生)’이 만들어 집니다.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든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저 흘러 보낸 시간은 강물이 흘러가듯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지만, 열정적으로 살아간 시간은 추억이 되어 마음 속에 자리잡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각자 다른 여리고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주님을 믿고 도느냐, 포기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성을 도는 일은 그저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掩襲)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포기하고 그저 다른 약하고 낮은 성을 찾으러 가고 싶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을 바라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기적은 벌써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배만성 형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추운 자동차를 히터로 데우며 출근길에 나섭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별도 보이지 않는 짙게 가라앉은 어둠 속에 비도 부슬부슬 내립니다. 2년전 12월, 논산훈련소로 입대하기 위해 새벽에 서울서 나선 길 위의 하늘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땅을 떠나 외국에서만 생활을 하다 군입대를 위하여 조금은 늦은 나이에 귀국하게 된 훈련병의 그 어두운 마음속에도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캄캄하기만 한 새벽, 처음 시작했던 좁고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곧고 길게 뻗은 고속도로 위를 달립니다. 마치 언제 좁고 구불구불한 길에서 계기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달렸는지는 잊어 버린 채, 자동차 엑셀을 신나게 밟으며 내가 가는 이 길이 고속도로라고 확신합니다. 금융위기의 시기에, 대학교 졸업 후 바로 회계법인에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흘러갈 때의 저의 마음도 딱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젠 좁고 구불구불한 길과는 안녕이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리다 하나 둘씩 앞에 다른 차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이유에 선지 모르지만 차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속도가 줄어 들면서 성마른 차들이 앞에 끼어 들기도 하고, 그러다 고속도로로는 마치 거대한 주차장이 된 것처럼 멈추게 됩니다. 2012년, 북한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났다는 말에 불현듯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지체없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귀국하게 되면서 회계감사원으로서의 커리어 역시 주차장이 되어버린 고속도로처럼 멈추어 버렸습니다.

저도 갑작스런 저의 결정에 혼란스러워하며 멈출 때, 하나님께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는 보지 못했던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저의 삶이 되어 버린 회사에서 나와,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또 다른 조직의 병사로서 속하게 되는 21개월이라는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며 그 시간 속에서 작게나마 예수님의 향기를 가질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무겁건 가볍건,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에 임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허락 해주시면서, 저와 저의 주변 사람들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전역하는 해인 2014년 1월이 밝아오면서 미국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전역날짜에 맞추어 바로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하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전역하고 한국에 남을지 아니면 미국에 다시 돌아갈지에 대해 깊게 고민하던 찰나에 그렇게 먼저 연락이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퍼레터에 서명을 하고 전역 후 2주만에 바로 떠났던 그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군복무를 위해 미국을 떠났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떠났던 그 자리 그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늘을 올려다 보니 어느새 푸른 어둠을 찢고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에 벽차 오르는 마음을 갖고 회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없는 저의 삶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의미를 갖고, 내가 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그저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허락아래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루라고 생각한다면, 단 하루라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꼭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아야겠다는 힘찬 다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사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속으로 조용히 혼자 웃으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 God's Love is in Every Language

**Robert Bates**

In January 2005, I had come to a point in my Christian walk that I believed that I was ready to open my heart and my home to a foreign student who was seeking the opportunit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learn English. I was single and had no children of my own, but wanted to experience what it was like to care for a young person. I discovered the profile of Min Seung-hyun, who was 17 years old at the time. He was the first Korean student that I offered to come to my home, and he immediately accepted. Min Seung-hyun wasted no time in coming into my home and introducing me to his culture and his customs. Seung-hyun was also a Christian and fit right in with my family and friends. Eventually, he became a member of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and has included me as well.

I have been wonderfully surprised at the generosity and acceptance of BCPC, and its members. As an African American male, I am very conspicuous and am keenly aware if I am avoided. That has not been my experience here. The people are very welcoming and kind. They assist me in understanding and translate the Korean words into the English language. In addition, BCPC has honored my family and Seung-hyun by awarding him the 2014 scholarship to assist him with continuing to complete his education.

It is my fervent hope to continue in my path to the Lord with the support and prayers of the members of Bucks County Presbyterian Church.

Amen



## 나의 간증



강태예 집사

### 할렐루야

저와 제 아내는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른 교회가 아닌 저희 벅스카운티 장로교회에서 첫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가정의 영적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저의 가족은 형과 어머니 모두 불신자이지만, 친인척분들 중에는 장로님, 권사님도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저의 와이프는 주변 친척 모두 기독교인이 전무한 영적 불모지에서 맺어진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첫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불모지에 저보다 믿음이 신실한 짝도 많을 텐데, 믿음도 적고 연약한 제가 그런 귀한 첫 열매의 부군으로 선택되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 미국으로 저희 가정을 부르시고 영주권을 받은 후 2010년에 Mall에서 옷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옷 가게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Mall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저희에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때 믿음이 없을 때는 자리는 가야 할 사람에게 어떻게든 돌아오게 되어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후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이곳 벅스카운티장로교회로 저희 가족을 불러주시기 위한 섭리 중의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이사를 오자마자 아내는 혼자 커가는 딸 아이를 위해 한글학교가 있는 교회를 찾았고, 교회에 첫발을 아내가 먼저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말씀은 그저 목사님의 좋은 말(얘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세속적이고 육적인 생각으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거듭나기 전 저를 그때 "Cold Fish" (냉(담)정한 사람)라고 말씀해 주시던 집사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은 가게에 나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교회 가자는 아내의 권유와 목장 식구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제 맘에 변화가 찾아 왔고, 2011년 연초부터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TEE 성경공부를 듣게 되었습니다. TEE 성경공부는 아마도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첫 시간을 기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웬지 저 같은 초신자가 낯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이 기라성 같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도 담임목사님은 일단 믿지 않는 분도 똑같이 입술의 고백을 하라고 인도해 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성경공부를 통해서 거듭남, 회개, 믿음, 순종, 염려, 기도하는 법 등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의 개념들을 풍요로운 삶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주어지는 말씀들을 가게에서 외위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수 있었고 세례준비와 QT모임을 통해서 저의 영혼은 조금씩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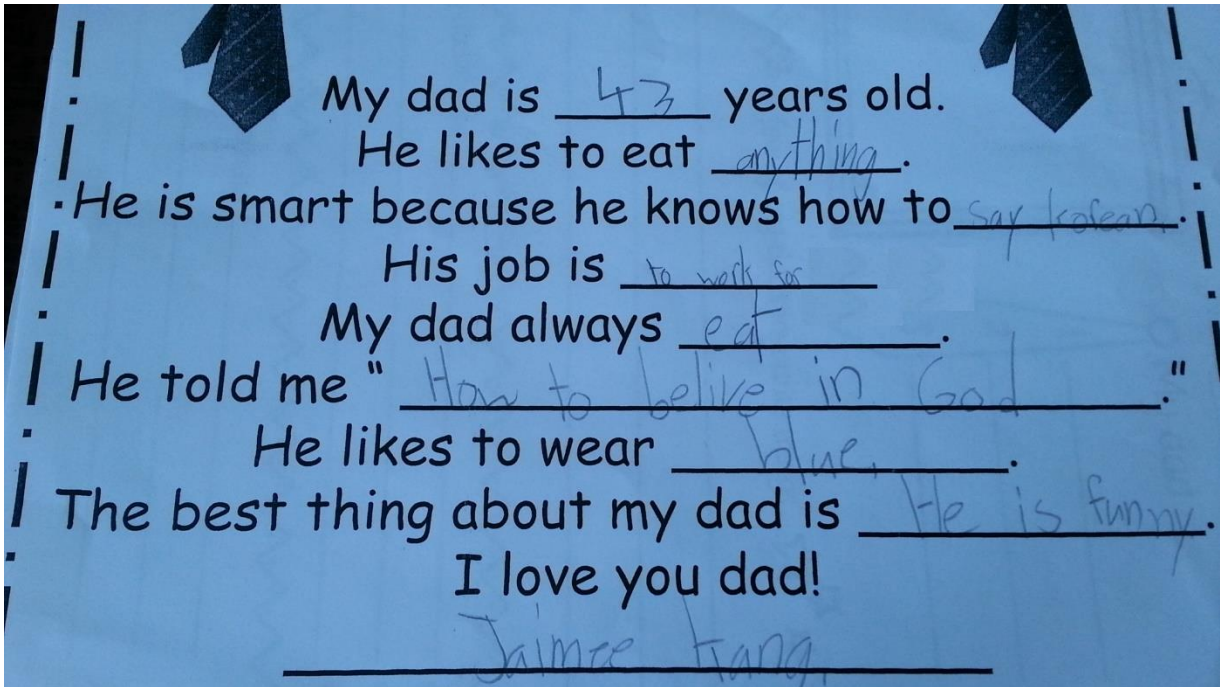
저는 2011년 하반기에 홀로 김성우 장로님과 세례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해주시는 개인간증들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족이 한국방문 중이어서 다른 일상의 방해 없이 TEE성경공부, 세례반 준비 그리고 QT, 나눔 등 말씀 안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다면 혼자만의 시간 대부분 TV, 영화 등을 보며 불규칙한 생활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주님은 저를 거듭나도록 그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에 QT모임에서 추천 받은 동영상 "팔복, 심령이 가난하자는 복이 있나니" 를 보게 되었습니다. 잘 울지 않는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며 흐느끼며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눈물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회개의 애통의 눈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껏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머리로만 믿고 싶은 말씀이었다면, 회개의 눈물 이후엔 온전한 마음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듭난 후 Q, T. 하면서 말씀을 제 주변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게 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사도행전16:3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는 말씀을 영어로 프린트해서 Cash Register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후원안내 가이드를 구비해 두었고, [오늘의 양식]을 개인적으로 50~100여권씩 신청해서 카운터에 구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며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나의 삶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가게에서 일하던 Andrew의 자폐증을 앓고 있는 여동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 여동생을 보았을 때는 그냥 안됐더라는 생각뿐이었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위해서 매주 작은 돈을 모아 일정금액이 되면 그 동생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주라고 물질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설명하면서... 그때 그 아이가 흘렸던 눈물은 큰 의미로 다가왔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직접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무익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던 Andrew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매일 기도하고 신실한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와 가끔 Message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인생 각자에게 언제나 다른 모습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듭난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은 저희 딸에게 매일 밤마다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아버지 날에 민지가 가져온 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He told me "How to believe in God.") ^^라고... 아마 평생 노력해서 자녀에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축복된 인생이겠지요. 비록 남들보다 늦게 주님을 만났고 기도통장도 바닥이지만, 저희 가족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중심으로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알려주셨어요(He told me "How to believe in God.")"

라고 적은 민지의 아버지 날 프로젝트



## 내리사랑



최광수 집사

몇 해 전 여름, 교회 식구들과 메릴랜드에 조개를 잡으러 갔었다. 같은 카누에 뒀던 일행 중 한 명은 Drexel 대학에 교환교수로 온 전북대 기계과 이 교수였고, 같은 기계과 출신이자 비슷한 나이이기에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직업얘기가 오갔고 본인의 첫 직업이었던 미국 보일러 인스펙터에 대해 소개받았다. 마침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을 하고 있던 터라 직업전환이 운명처럼 느껴졌지만, 라이선스를 받기에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았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보일러 인스펙터는 좀 딱딱한 얘기지만 미국표준기계협회(ASME: American Standard Mechanical Association)와 National Board에서 인증하는 공인 인스펙터이다. 경험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National Board가 주관하는 다양한 보일러와 고압용기의 지식이 요구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나이 오십에 침침해져 버린 눈으로 다시 그 어려운 수학기공식과 또 익숙지 않은 미국기계법규를 공부한다는 것은 아무리 한국의 대기업에서 기계설계로 잔뼈가 굵은 기계쟁이에게도 만만치 않은 새로운 인생도전이 자 중대한 결정이었다. 읽어야 할 code book의 두께가 주는 공부의 압박감, 나이 사십에 이민 와서 학교 한번 다니지 않은 보통의 영어 구사자가 인스펙터가 되어 미국인에게 받게 될 영어의 압박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나이에 수입도 없이 도서관에서 지내야 하는 기약없는 생활의 압박감은 대학 다니는 자녀를 둔 가장이 내릴 수 있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예상 밖의 아내의 속 깊은 허락과, 이 교수의 진심 어린 독려,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다든 세 번의 기회 중 마지막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고 싶은 미국에서 설움 받은 역전의 용사는 그동안의 삶의 터전인 직업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심했다. 마치 나이든 술개가 남아있는 생을 위해 낡은 부리를 빼고 새 부리로 무장할 때의 마지막 몸부림처럼.

늦은 나이였지만 직업의 전환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었다. 며칠간 생소했던 도서관 생활도 이내 대학교 생활처럼 익숙해졌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복잡한 설계공식도 이교수의 도움으로 왕년의 용사 앞에는 막힘이 없었다. 마치 두 번째 삼푸는 적은 양에도 쉽게 거품을 내듯이.

드디어 이틀에 걸친 시험에 합격을 했고 이 교수의 부탁으로 그의 친구이자 이 분야의 대선배인 주감독으로부터 한국에서 약 6개월간 보일러제작 인스펙션 경험을 쌓은 뒤 미국보험회사에 입사 후 공인 인스펙터로서 화력발전소, 정유회사, 화학공장, 제약회사 등 굵직한 플랜트뿐만 아니라 작은 업소용, 산업용 보일러와 고압용기를 인스펙트한지 벌써 5년차에 들어간다.

이 직업은 사실상 정년이 없는 직업이자 나이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직업이기도 하다. 오십 중반의 나이면

이미 다른 회사에서는 은퇴를 눈치 봐야 할 나이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사한 복이기도 하다.

인생 후반에 이런 복을 받게 동기를 준 천사 같은 이 교수에게 물었다. “교수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최 집사님, 전 집사님이 직업에 대해 지금 가지신 것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사실 저도 이 직업을 소개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 드렸지만, 그 후에 하나님은 내 리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했더니 더 큰 복을 주셔서 지금은 교수가 됐어요. 집사님도 저한테 갚으려 하지 마시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내리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위가 따뜻해질 테니까요.” 이 교수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전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몇 해 전 메릴랜드에 있는 한 한인세탁소에 인스펙트 할 기회가 생겼다. 그 업소의 주인은 신분문제로 한국에서 묶여 있었고, 보일러에 전혀 문외한이고 영어마저 서툰 그의 아내가 보일러 인스펙션을 받게 되었다. 인스펙션에 부담감을 느낀 그녀는 전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내일 인스펙션을 잘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침에 나타난 인스펙터는 늘 나타나던 미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고, 자상한 한국말 설명과 함께 염려했던 모든 검사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인스펙션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녀가 문 앞으로 마중 나오며 말했다. 인스펙터라고 ID를 보이며 들어오는 내 첫 모습을 보고 갑자기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생각났다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내년에도 꼭 오라고 신신당부 하신다.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기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경험담이 나이 오십 즈음에 남은 인생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외롭고 힘든 결정도 막상 도전해보니 목표는 걱정만큼 멀리 있지 않았음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증명되었으니 말이다. 특히 미국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영어 때문에 문화차이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 요소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오십 대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부지런함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용기가 필요한 그들에 대한 나의 작은 내리사랑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오후 5시에 뽑힌 인생 (마20:1-16)



이강훈 집사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포도원 비유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비유가 더 제게 와 닿았던 것은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 그런가 봅니다. 한국도 그렇고 여기 미국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회사원이 제 나이가 되어 해고 당하면 갈 데 없어 인력시장에라도 나가서 일자리 찾아 돌아다니다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시장에는 젊고 힘센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뽑힙니다. 제일 먼저 뽑힌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올지 모르니 사양하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신 나서 갈까요? 일찍 뽑혀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특별해서 뽑힌 줄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냥 뽑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신 것은 아닌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사업에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8절). 종이 있는데 일꾼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남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먼저 뽑힌 사람들을 부러워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뽑아주길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침 9시에 뽑힌 사람들은 처음에 뽑힌 사람보다 고마워했을 것 같고, 12시에 뽑힌 사람도 고마워했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잘 나서 뽑혔다고 생각했을 수 있었겠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오후부터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젊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까짓것 하루 굶지? 하고 집에 돌아 갈 수도 있었겠지만, 식구가 딸린 가정들은 그 식구들이 눈에 아른거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우리 자식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하는 생각에 집에 가질 못하죠. 그래서 다시 누가 오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인력시장에는 오후에는 대부분 누가 채용하러 인력시장에 가지 않습니다만,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가서 사람들을 뽑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5시에 뽑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일이라도 시켜만 주세요. 무슨 일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 다 안 받아도 된다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겠지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할까요? 고마워서 감사의 눈물을 펄펄 흘렸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두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비교하는 순간 약정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왜 난 겨우 요것 받는 거야?’ 하고 불평했습니다. 처음의 감사했던 마음이 비교하는 순간 사라지고 불평으로 변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디서든 우리는 일할 때 항상 약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먼저 뽑힌 사람은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그 주인이 또 뽑을까요? 그 일꾼의 마음을 아는 주인은 ‘네 은혜가 족하다’ 하고 다음에 안 뽑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뽑힌 사람은 그 다음날 뽑히면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경험했습니다. 사회에서는 특히 젊었을 때, 내가 잘 나서 뽐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주장이 강했고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자리인줄 모르고 박차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오후 5시까지 뽐아주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다 집에 간 적도 있었지요. 그러면 나만 오길 기대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 다녔죠. 일자리 찾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저의 속은 아주 까맣게 탔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뽐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시키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실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게 교회에서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찬양대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복을 그 직분을 통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고 또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목자의 직분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목자의 직분을 통해 또 제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제게 일을 주시는 것이 제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저를 뽐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 뽐혔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날마다 새로와져 가며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며 뽐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



## 2014년에 부모님께 보낸편지들



양원호 장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그 동안 전화는 자주 드렸었는데, 오랫동안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중국이나 대만으로 출장도 자주 가고 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덕분에 한국에 들러 아버지 어머니도 자주 뵈게 되어 참 좋았습니다. 집에 들렀을 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챙겨 주시고, 신경 써 주시니까 오히려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님 얼굴 뵈고, 함께 식사하는 정도면 되는데, 앞으로는 그리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년에 대학을 마치고, 결혼하고 미국에 와서 산 지도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에서의 생활한 햇수보다 미국에서 생활한 햇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에서 생활 하는 동안 그리 평탄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큰 은혜를 입었던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님들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특별히 좀 더 힘든 자녀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쓰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되어 가고 자녀들을 키우는 동안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많은 말씀은 하시지 않으셔도,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살피시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 주시려는 선한 마음들이 있으신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들이 저희들 속에 배여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동생 희주를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 한 편에 있는 안타까운 마음과 측은한 마음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대연동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래도 잘 데리고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그리할 수도 없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한 적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지혜의 반을 나누어 서라도, 우리 동생 희주의 부족한 지혜를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 지지 않았지만, 제 동생을 무시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기회가 되는데로 동생을 잘 보살펴 주고, 사랑으로 돌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아버지 어머니께 약속하려고 합니다. 저보다 동생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오빠들이 둘이나 더 있으니, 너무 염려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생이나 저희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과 평강 가운데 생활해 가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하나씩 결혼할 때가 되어 가는데,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 함께 영원한 삶을 살고, 때가 되면 온 식구들이 그곳에서 다 함께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도 23년 전에 저희 첫째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것을 생생히 기억하며, 그 일을 통해 저희 가정에 주신 고난과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석이는 몇 주 전에 찬 물을 마시면 이가 시리고 아파서 치과에 가보겠다고 해서 약속을 정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기도모임을 하는 중,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치통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모임 후에 남으면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치통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해 하며,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찬 물을 마셔도 이빨이 시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낮게 해 주셨다고 감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3년여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 아들을 볼 때, 저희 부부는 늘 감사하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에도 참 감사하답니다.

지인이는 대학생활 한 학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는데, 다니던 교회가 자기와 잘 맞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교회 옮기는 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적응해 가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빠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어려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 것을 볼 때, 부모의 조언과 기도가 항상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두 자녀 다 대학생활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자기 할 일도 착실히 하고,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기쁘게 생활해 나가면 좋겠다는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들 가운데 늘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25일

뉴저지에서

셋째 아들 원호 올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그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얼마 전에 지인이와 애 엄마가 함께 한국에 가서 여러 모로 분주하고 신경이 쓰이시겠습니다. 그래도, 지인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또 만나뵙고 싶다고 잔뜩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 손을 꼭 잡고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다녔던 학교에 자기도 가서 공부를 한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졸업한 학교라서 등록금도 20% 싸게 되고, 또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아빠가 졸업한 것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네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과 저희들을 지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옆에 든든히 서 계셔서, 어려울 때도 많은 의지와 도움이 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녁 무렵에 산책을 하면서 문득 외할머니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여의셔서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며 막내 사위인 아버지를 측은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20살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젊은 시절을 혼자 헤쳐나가야 했던 외롭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저려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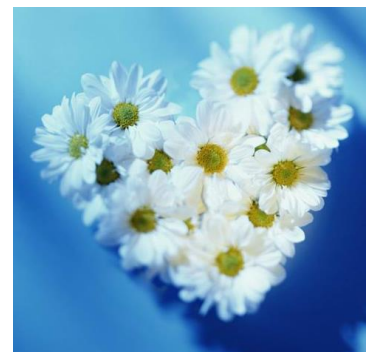
지난 한 주간은 교회에서 창립 40주년 경로잔치 행사를 한다고 해서, 거의 매일 같이 교회를 갔다오고 하니, 좀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대접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머슴처럼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린 나이에 다른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 했고, 동무들이 학교에 갔다올 때, 부끄러워서 길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지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아들이 한국에서 좋은 학교를 졸업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린 것을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했고, 또 손주와 손녀도 좋은 학교에 다니며, 신앙생활 잘 하게 하시니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울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때때로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 저도 아버지를 닮아가나 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6월 2일

셋째 아들 원호 올림.



교회 앞에 드리는 작별인사



김경숙 권사

40 여년전 참좋은 하나님께서 저를  
 마귀에 오게 하시어 사랑하는 우리 벵스카운터장로교회  
 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년간 부족한 제가 찬양 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사랑해 주신  
 개원 여러분께 . . . . .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참 좋은 우리 벵스카운터 장로교회  
 참좋은 목사님, 사모님, 참 좋은 교우 여러분  
 참 좋은 지체자님, 방주자님, 개원 여러분  
 이런 분들의 결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경상  
 어쩔수 없이 떠나야 하는 저의 마음은  
 아픈 눈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만날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가는 소식이 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오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전혀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랑이 받아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시

나의 신앙고백



공문선 권사

나 주님을 알기 전엔  
어두운 구름 속에 살았었지

그러나 이제는 달라  
내 맘속에 자리 잡은 주님이 있었기에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게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시네!

나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부족한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송 드릴 뿐이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터에 앉아  
온 우주를 가슴에 안은 양  
이 흐뭇함이여

오색찬란한 다이아몬드를  
한 아름 준다 해도  
내 맘속의 주님과는 못 바꾸리!  
정녕 못 바꾸리!!



## 벽스카운티 장로교회의 제2 교육위원회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오정선미 권사

벽스카운티 장로교회는 평생교육과 2세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자라고, 꿈도 자라고, 실력도 쑥쑥 자라는 벽스카운티 장로교회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먼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경로대학을 소개합니다.

### 1. 경로대학

경로대학은 봄학기과 가을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격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성경공부, 건강에 관한 유익한 강의, 일반상식 강의, 영어, 라인댄스, 노래, 그림/만들기, 빙고게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늘 기다려지는 점심 시간!  
오늘은 무슨 반찬이 나올까?



한 학기 동안 배운 실력!  
대한민국 국전에 출품해도 될  
정도로 멋진 솜씨들입니다.



건강을 위해 라인 댄스는 기본! 야유회도 가고 좋은 곳으로 관광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함께여서 더 의지가 되고 따뜻한 경로대학에 관한 문의는 이부생 교장 또는 교회로 하시면 됩니다.

## 2. 여름학교

여름학교는 말 그대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열리는 Summer School입니다. 6주 프로그램이며 보통 7월 초에 개학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5일간) 수업이 있으며,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대상은 3세-12학년까지로 3세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등록하는 여름반과 7-9학년 학생들이 등록하는 중, 고등반이 있습니다. 여름학교의 모든 수업과 activities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공부외에 다양한 야외 체험학습이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물놀이를 가기도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 집니다.



배운 것을 발표해요.





신나는 야외 학습. 더워도 좋아요.



5학년, 우리 반이에요.



내가 만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신나게 놀면서 공부하는 여름학교에 관한 문의는 박현진 교장 또는 교회로 문의를 해 주세요.

### 3. 한국학교

벽스카운티 한국학교는 1980년에 개교를 했고 주 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 인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필라델피아 인근에서는 가장 오래된 한국학교입니다. 모든 학생이 귀한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벽스카운티 한국학교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21세기 지도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발표의 장을 만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우리 벽스카운티 한국학교가 하는 일 중의 하나이며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3세에서 외국인 성인반에 이르기까지 11개 반이 있습니다.



벽스카운티 한국학교에서는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는 물론 특별활동 시간에는 음악, 미술, 태권도, 농구, 축구, 요리반, 풍물놀이반 등이 있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체험을 위해 가을학기에는 추석잔치를 봄학기에는 설날잔치, 대보름잔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투호던지기, 널뛰기, 윷놀이, 제기 만들어 차기, 연날리기 등을 하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송편이나 강정 등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연극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기도 합니다.



교내 대회로는 학생들의 기본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길러주는 “열 문장 말하기대회”, “교내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교내 동요대회”, “도전! 골든 벨을 울려라” 등이 있으며 학기말에는 학생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장 서는 날”, “학예회”, 체육대회, “한글날! 세종체험학습”등의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박물관 등으로 문화 체험을 가기도 합니다.



빅스카운티 한국학교는 모든 교실을 21세기형 교실로 바꾸었습니다. 각 반마다 빅 스크린을 설치하여 교사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선별된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 및 문화, 역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재 이외에 이높이, 로제타 스톤 등을 부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배워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120시간의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공부하시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워서 남(학생들 주자.”라는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은 학기 중에도 나타납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그 주에 가르칠 학습지도안을 미리 만들어서 모든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서로 효율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있으며 자체교사연수나 지역 교사연수회 등에 참가하여 쉬지 않고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빅스카운티 한국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봄학기와 가을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업시간은 토요일 오전 9시에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점심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한국학교에 관한 문의는 오정선미 교장 또는 교회로 하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보는 2014 년



신년기도회



목자/권찰 세미나



초등부 성경필사



부활주일





전교인체육대회



어버이주일



제13기 제자반 수료식



장학금 수여식



교육부 졸업식



창립40주년 기념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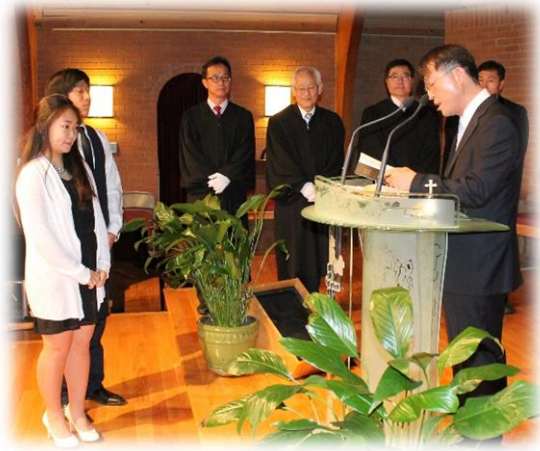
하늘의 기쁨



추수감사주일 찬양

새교우환영회





입교/유아세례/세례



성탄주일









2014 년 세교우들



배종관/아미



김성철



권호연



박성용/민경 인지, 인호



소현희 이지고, 지원, 지산





백재희



서도형



최광수/명균



김형진/서운 이안 이튼



박진수/경미 은빈



신정미



방정진



이도자



이오예, Daniel Kim



백민재





민예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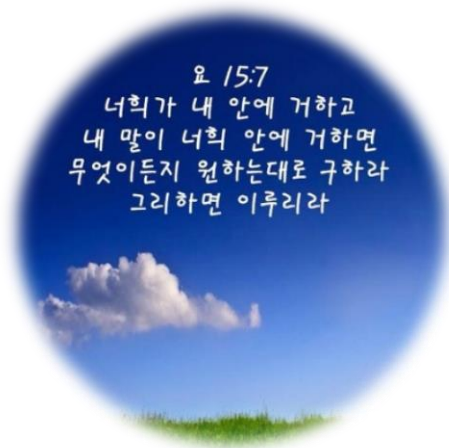
신재완



박영안/계획



허미옥



편집후기

다음 호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은혜를 받는 <믿음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GYK

<믿음의 소리> 속에 담긴 믿음의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한 일도 없이 편집후기를 쓰게 되어 민망하기 그지없는 선미(仙美)

<40 주년 믿음의 소리>에 동참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글들을 모으고, 의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보낸 시간들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에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만큼 갈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꼈고, 의구심도 있었고,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책 한권을 발간해서 진심으로 부듯합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것 같네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엽님, 바라옵기는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 책을 발간하고 나서 성도님들의 관심, 그리고 잔잔한 흥미로움을 가미하는 목적으로 출판부에서 (장원상을 선정해서 책 발간하는날 당회장님께서 상금을 하사하시면 어떨까요?) 유택환

미국에 사는 동안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 겨울을 지내면서 마음도 얼어붙고 생각도 경직되고 영도 메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교정, 교열을 하기 위해 <믿음의 소리> 원고들을 읽으며 저를 다시 돌아 보게 되고 주님 사랑하는 초심을,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큰 아들 서구가 아팠을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절실히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찢으시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전부를 주셨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믿음의 소리] 원고들마다 각각 형식과 모양과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세지들이,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헌신의 결단과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종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책에 담긴 글들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고 부탁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 아름다운 글을 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음으로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소리가 책되어 나올 수 있도록 애쓰신 김건엽 장로님, 오정선미 권사님, 유택환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조규성 집사님! 너무 너무 수고하셨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하은숙

창립 40 주년 기념 <믿음의 소리 42 호>가 책으로 발간됨을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첫 회의를 통해서 긴 안목으로 내다보고 여유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결국엔 제한된 짧은 시간에 만나고 의견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원고를 모으고 교정, 교열 그리고 편집하는 작업에 시간과 마음을 쏟아 주신 김건엽 장로님, 편집위원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출판해 주신 Entourage Years Books 조규성 집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동역의 기쁨을 맛본 귀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귀한 원고들을 읽으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주님의 섬세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책 속에서 울려나오는 믿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구합니다. 김경미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김풍운(pwkim529@gmail.com)  
**부 목사** 이승우(행정/찬양팀/청년) Thomas Chang(EM/선교) 박반석(교육/중고등)  
**전도사** 이윤희(유아) 양선배(유치) 홍윤미(초등) 최세훈(EM대학)  
**시무장로** 이영석 양원호 김철우 최환식 김건엽 안병민  
**은퇴장로** 오상백 김영옥 이병익 이건상 조 승 김내섭 김성우 최현진 윤영석 김건재 장 철  
**협동장로** 김정인 조정환 김용완 박찬국 김경범 허우장 김인출 이규성 양찬모 조성은  
**지휘** 김주영(1부) 윤희진(3부) **반주** 유선희(1부) 황수진(3부) 김연숙(수요) Holy Chamber(3부)  
**간사** 김경미(사무) 조정제(관리) 이미연(웹관리)

**집회시간안내**

구분	내용	시간	장소
예배	주일 한국어 1부	오전 8시 30분	본당
	2부	오전 10시	소예배실
	3부	오전 11시 30분	본당
	EM	오전 10시	본당
	유아/유치부	오전 11시 30분	유아/유치부실
	초등/중등/고등부	오전 11시 30분	교육관/소예배실
	창년예배 수요찬양	오후 1시 30분 오후 8시	창년부사무실 본당
기도회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시	본당
	합심기도회(매월 첫 수요일)	오후 8시	본당
	금요기도회(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치부실
성경공부	목장모임(매월 둘째주)		가정에서
	창년부 성경공부(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창년부사무실
	영어회중(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소예배실
	고등부(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중등부(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소예배실
	초등부(매주 금요일)	오후 8시	교실
정기모임	월례회(여:첫주일, 남:셋째주일)	오후 2시	각 전도회별
	위원장회의(셋째 주일)	오후 2시	각 위원회별
	제직회(분기별)	오후 2시	본당
	당회(넷째 주일)	오후	당회실

**본 교회가 돕는 분들과 단체**

**파송선교사** 김명수(케냐) 장택규(WEC)  
**협력선교사** 유병국 (WEC국제본부) 장석창(태국) 이남행(중국) 이상길(러시아) 장영호(GP 한국본부)  
 이춘심(네팔) 박용현(네팔) 이준교(이집트) 최명은(케냐) 최용기(필리핀) 김우영(몽골) 전영구(도미니카공화국)  
 황기수(캄보디아) 한준수(태국) 하홍중(태국) 허태녕(튀니지) 박민하(한국GBT) 정훈기(GMC) 강민숙(일본)  
 심재원(모리타니아) Chris Brown(아제르바이잔) 이영주(이집트)  
**협력 단체** 중동선교회 필라기독방송 미주크리스찬신문 크리스찬투데이 크리스찬 타임스 오늘의양식 동부개혁신학교  
 뉴비전청소년센터 크로스선교회 GPM 선원선교회(필라) 밀알선교단(필라) JAMA 한국군선교회 신바람낙도선교회  
 JOY선교회 Delta Community Langhorne Garden(양로원사역) YESDaddy(교아원사역) 여호와넷시의집



교역자



담임 김풍운 목사



이승우 목사



Thomas Chang 목사



박반석 목사



이윤희 전도사



양선배 전도사



홍윤미 전도사



최세훈 전도사

은퇴장로



오상백 장로



김영욱 장로



이병익 장로



이건상 장로



조 승 장로



김내섭 장로



김성우 장로



최현진 장로



윤영석 장로



김건재 장로



장 철 장로

사무장로



이영석 장로



양원호 장로



김철우 장로



최환식 장로



김건엽 장로



안병민 장로

협동장로



김정인 장로



조정환 장로



김용완 장로



박찬국 장로



김경범 장로



허우강 장로



김인출 장로



이규성 장로



양찬모 장로



조성은 장로

#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는 만남의 장이며

믿음의 소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말씀과  
생활을 나누는 교제의 장이며

믿음의 소리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임을  
확인케 하는 나눔의 장이며

믿음의 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웃을 향한 복음의 소리입니다.

발행인: 김풍운 목사

출판사: Entourage Year Books 조규성 집사

편집인: 김건엽 장로

편집위원: 김경미, 서수인, 오정선미, 유택환, 이하은숙, 이호신